

세계생태와 역사적 자본주의의 구체적 총체성: 세계체계 분석의 지속 혹은 변신?*

이광근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강의초빙교수

이 연구는 무어의 세계생태 분석의 발전 과정을 형성과 성장의 두 국면으로 구분하고, 이 과정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첫째 국면은 포스터와 버킷의 생태맑스주의 이론과 윌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 간의 교류를 통해 2000년대 초 세계생태 분석이 탄생하는 과정이다. 둘째 국면은 2010년대 이 분석이 하나의 독창적인 시각, 분석틀, 방법, 대화로 성장한 과정이다. 이 시기를 통해 세계생태 분석은 초기에 자신에게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였던 두 전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그 독창성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 성과는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에 집약되었다. 이 책에서 제기한 분석틀이 이후 여러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이 분석이 그동안 고립되어 진행되어 왔던 생태주의와 맑스주의, 가치형태 분석과 세계체계 분석, 그리고 노동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의 자본주의 비판들에 통합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앞날은 더욱 기대된다.

주제어 세계생태, 세계체계, 물질대사 균열, 생명의 그물, 구체적 총체성

I. 들어가며

2019년 윌러스틴 사후 세계체계 분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의 영면으로 인한 세계체계 분석의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관한 이 물음이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한 직접적인 동기이다. 윌러스틴이 떠난 지 1년 남짓 지난 오늘날 그의 지적 유산을 명시적으로 계승한 연구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경향은 무어 (Jason W. Moore)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세계생태(world-ecology) 연구다. 윌러스틴이 몸담았던 빙햄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무어

* 이 논문은 2020년 10월 20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세미나인 “세계체계, 동아시아, 그리고 한국: 이매뉴얼 윌러스틴을 기리며”에서 발표된 글을 다듬은 것이다. 발표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김현우 선배, 세미나를 통해 조언을 해 주신 임현진, 김철규, 백승욱 교수님,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감사드린다.

는 활발한 저술 활동과 전방위적 논쟁으로 주목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지적 동조자들을 규합하여 “세계생태 연구네트워크(World-Ecology Research Network)”¹를 조직하여 세계생태 분석을 집합적 프로젝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다. 세계생태 분석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세계체계 분석 혹은 세계역사 연구²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쟁점들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오늘날 주목받는 그의 모습을 보면, 1970년대에 월러스틴이 거둔 성공과의 몇몇 유사성이 감지된다. 일단 세계생태 분석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활발한 개인적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무어는 한 해에만 대여섯 편의 논문을 한꺼번에 발표한 적도 있을 정도로 다작에 능한 학자다. 둘째, 그의 세계생태 분석이 이제 더 이상 그 자신만의 개인적 학문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이 협력하는 집합적 프로젝트로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2015년 출범한 “세계생태 연구네트워크”는 매년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인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그의 저작들이 생태주의 진영 안팎에 걸쳐서 진지하고도 열띤 논쟁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정리하면, 오늘날 무어는 1970년대의 젊은 월러스틴만큼이나 자신의 독특한 시각으로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시각을 집합적 프로젝트로 성장시켰고, 생태담론의 논쟁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애초의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그의 작업들을 살펴보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무어는 브로델(Fernand Braudel), 아리기, 홉킨스(Terence Hopkins), 토미치(Dale Tomich), 맥마이클(Philip McMichael) 등 월러스틴과 함께 세계역사 분석 전통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들뿐만 아니라, 포스터(John Bellamy Foster), 버킷(Paul Burkett) 등의 생태 맑스주의, 하비(David Harvey)의 역사지리 유물론 등 다양한 전공에서 형성된 여러 조류들로부터 지적 자원들을 섭취하여 세계

¹ 이 네트워크의 홈페이지는 <https://wordecologynetwork.wordpress.com>이다.

² 이는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연구를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학문 경향을 뜻하며, 그 학문 경계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에 대한 내부 이견이 적지 않았던 페르낭 브로델 센터와 그 주변의 동료와 학생들은 world-historical study(혹은 analysis)라는 표현을 선호하였고, 특히 월러스틴과의 공동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하였다. 따라서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은 세계역사 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생태 분석을 선보였다. 무어(2020: 62-63)는 세계생태 분석이 이론이 아니라 시각(perspective)이고, 과거와 현재의 인류의 다면적 경험들을 이론화하기 위한 분석틀(framework)이며, 생명의 그물, 인간, 비인간을 함께 엮어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method)으로 제시한다. 최근에는 “세계생태 대화(conversation)”라는 표현을 새로이 쓰면서 서로 다른 입장간의 대화를 통해 이 분석을 확대재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와 함께 세계생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경고한 클라인(2016)이나 누구보다 발빠르게 코로나19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출판한 말름(Malm, 2020) 같은 생태사회주의자들부터 포스트휴먼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해러웨이(Haraway, 2016) 등이 있다. 이처럼 그는 상당히 넓은 지적 스펙트럼의 학자들과 자본주의와 세계생태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세계체계 분석과의 연관성 속에서 무어의 세계생태 연구의 위상에 대해 잠정적으로나마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발전해 온 그의 세계생태 분석을 형성과 성장의 두 국면으로 나눠서 그 변모 과정을 추적해 볼 것이다. 먼저 그에게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이론적 자원에 주목하여, 2000년대 초 무어가 생태 맑스주의 이론을 어떻게 세계역사적으로 재구성하였는지, 또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을 어떻게 생태 맑스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 보완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세계생태 분석은 한편으로 하나의 독특한 시각으로 성장하여 초기에 의지하였던 물질대사 균열 이론 진영과 상이한 입장을 보이며 열띤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다른 한편, 세계생태 분석은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에 대한 내부적 비판의 성격을 띠었던 일련의 세계역사 연구로부터 분석틀과 방법들을 흡수하면서 그 시각의 독특성이 더욱 발전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체계 분석과의 비교를 통해 이 관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생태 맑스주의의 세계역사적 재구성

포스터와 버킷의 『맑스와 지구: 반비판』(Foster and Burkett, 2016: 1-11)에 따르면, 생태사회주의의 역사는 대략 ① 형성기(1960년대~1980년대 초), ② 제1기 생태사

회주의(1980년대 초~), ③ 제2기 생태사회주의 혹은 생태 맑스주의(1990년대 중반~), 이렇게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환경운동이 등장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첫 번째 시기는 생태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기 전의 일종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의 환경 파괴 경향에 대한 급진적 비판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마르쿠제(Herbert Marcuse), 스위지(Paul Sweezy), 메자로스(István Meszáro) 같은 맑스주의자들도 있었지만, 니어링(Scott Nearing), 북친(Murray Bookchin), 카슨(Rachel Carson) 같은 비맑스주의자들도 존재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새로이 등장한 환경사회학이 네오맑스주의적 성격을 띠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으로서 맑스주의와 생태주의는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1970년대 말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시기는 “제1기 생태사회주의”로 명명할 수 있는데, 맑스주의와 환경주의 간의 적대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 시각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냉전체제하의 핵무기 경쟁부터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 현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다를 바 없는, 혹은 그것을 능가하는 또 다른 개발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원천에 불과하였다. 사정은 소비에트 진영뿐만 아니라 사회당이 집권한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녹색당과 그린피스를 비롯한 생태주의 진영은 맑스주의의 영향권 바깥에서 이론과 실천의 진지를 구축하였다. 동유럽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맑스주의가 정치·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론·문화적으로는 포스트모던 담론에 의해 파산 선고를 당했을 때에도 생태주의는 후자의 비판에 합류하였다. 역사적 사회주의의 붕괴는 그 체제를 지탱하던 이론과 이데올로기 지형에도 변화를 일으켜 “정통”을 자부하던 “당(黨)의 맑스주의”는 분해되고 이른바 “천(千)의 맑스주의” 시대가 도래하였고³, 생태사회주의 진영도 새로운 이론적 이합집산을 겪게 되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환경파괴의 공범이라는 인식은 자본과 노동이 공모하여 자연을 착취해 왔다는 이론적 논의로 연장되었다(고르, 2008). 맑스에 대한 환멸, 공격, 성찰이 생

³ 윌러스틴(1994: 232-242)은 맑스주의의 역사를 ① 유토피아로서의 맑스주의, ② 정통 맑스주의, ③ 천의 맑스주의,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태주의 진영에서도 만연하였다. 맑스의 생태적 오류들이 지적되었고, 맑스주의를 녹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줄을 이었다(Benton, 1996).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벤사이드(Daniel Bensaid), 벤튼(Ted Benton), 드레이아주(Jean-Paul Deleage), 고르(André Gorz), 리피에즈(Alain Lipietz), 초기 뢰비(early Michael Löwy), 그리고 최근의 무어(later Jason Moore) 등을 들 수 있고, 맑스에 대한 생태주의적 비판은 1980년대 말에 창간된 저널 *Capitalism Nature Socialism*을 중심으로 세를 넓혀 나갔다.

1990년대 말부터 이 제1기 생태사회주의 안에서 제2기 생태사회주의 또는 생태 맑스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대립적인 반경향이 움트게 된다. 제1기의 논의가 맑스(주의)가 자연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에 기초했다면, 이 제2기는 제1기 논의의 기반을 이루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2기를 대표하는 학자들로는 포스터와 버킷을 포함하여, 알트바터(Elmar Altvater), 맥도프(Fred Magdoff), 말름(Andreas Malm), 맥마이클(Philip McMichael), 코헤이(Saito Kohei), 그리고 초기(early) 무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연에 대한 고전 맑스주의의 생태적 논의들을 발굴해 내었고, 제1기가 기각했던 맑스의 논의들을 새로운 생태적 시각에서 조명하였다. 특히 1999년은 21세기 생태 맑스주의의 새 출발을 예고하는 해로 볼 수 있다. 이 해에 *Monthly Review*의 편집자 포스터(Foster, 1999)는 “맑스의 물질대사 균열 이론”을, 버킷(Burkett, 1999)은 『맑스와 자연』을 출판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근본적 비판자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의 급진적 옹호자로서 맑스의 목소리를 재구성해 선보였다. 두 글은 제1기의 혹독한 비판으로 주변에 머물던 맑스의 이론을 생태적으로 재해석하여 생태 맑스주의의 저발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후속 연구를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생태주의자들의 맑스 비판에 대해 반비판을 수행하기 위해 쓰여진 『맑스와 지구: 반비판』에서 제시된 제1기와 제2기 생태사회주의의 구별은 엄밀한 시기적 구분이라기보다는 맑스를 해석하는 두 경향에 관한 일종의 피아식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곧 2000년대의 무어는 자신들과 맑스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생태 맑스주의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2010년대 이후 최근의 무어는 그렇지 않다는 저자들의 불편한 심경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초기 무어와 최근 무어의 차이란 무엇일까? 그런데 이 책이 생태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반비판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어는 본문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이유를 III, IV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절에서는 세계생태 분석에 이론적 영감을 제공한 주요 자원으로서,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 이론과 버킷의 가치형태 접근을 정리하고, 초기 무어가 이 생태 맑스주의적 자원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물질대사 균열

포스터(Foster, 1999)는 환경사회학이 고전 사회학을 “인간중심적” “사회-문화 결정론”으로 취급하며 외면해 온 현실이 분과 학문으로서 환경사회학 이론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고전 사회학 이론이 환경사회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사례로서 인간의 생산활동과 자연조건 간의 “물질대사 균열(metabolic rift)”에 관한 맑스의 이론을 소개한다. 이 논문은 그다음 해에 출판된 저서 『맑스의 생태학』에 개정되어 5장에 재수록되면서 그를 생태 맑스주의 논의의 중심 무대에 설 수 있게 해 주었다(포스터, 2016[2000]). 포스터(2016: 173)는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맑스가 자연을 “인간의 비유기적(inorganic) 신체”⁴로 보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노동의 소외를 이중소외론으로 해석한다. 곧 인간이 nature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을 “자기 내부의 본성(nature)과 외부의 자연(nature)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것”으로 풀이한다. 따라서 맑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은 동시에 “변증법적 자연주의”이다. 그는 맑스의 이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그 의의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에피쿠로스, 다윈, 리비히의 이론이 이 변증법적 자연주의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에피쿠로스는 모든 신적 개입, 절대적 결정론, 목적론적 원칙을 자연에서 배제하면서도 인간의 사유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자연의 객관성에 주목했던 철학자로서, 맑스가 헤겔과 절연하고 반목적론적 유물론을 정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에피쿠로스가 청년기 철학에 영향을 끼쳤다면, 다윈과 리비히는 맑스와 엥겔스의 지적 전성기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들이다. 에피쿠로스처럼 목적론을 거부하였던 다윈은 유기체와 환경이 함께 적응하며 변화한다는 자연의 역사

⁴ 이 언급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된다(맑스, 2000, II: 99).

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적 상호작용이라는 일관된 시각에서 전개된 정치경제학 비판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포스터는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생태적 관점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비판받았던 맑스가 사실은 당대의 주요 생태위기에 대한 훌륭한 비판적 분석가였다는 증거로 제시한다. 그는 맑스의 생애 대부분과 겹치는 시기를 제2차 농업혁명기⁵로 명명하면서, 맑스가 동시대 농화학자인 리비히(Justus von Liebig)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리비히는 생리학 용어인 물질대사(Stoffwechsel)를 농·생화학 분야에서 통용되게 만든 이였다. 그는 토질 저하를 야기하는 영국의 집약농업과 템즈강 수질을 저하시키는 대도시 런던의 과잉인구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템즈강으로 방류되는 대소변이 농촌의 밭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토양의 생산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농촌의 땅에서 생산되어 도시로 공급된 에너지원이 소비되어 다시 농촌으로 환류하지 못하고 버려짐으로써 도시의 수질과 농촌의 토질이 동시에 악화된다는 것이다(Foster, 2000: 154).

맑스(1990: 999)는 『자본』 3권 47장에서 리비히를 인용하며, 농촌인구를 감소시키는 대규모 토지소유와 도시인구를 증가시키는 대규모 산업화를 “사회적 물질대사의 상호의존적 과정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rift)”이 생긴 것으로 언급한다. 대규모 공업이 노동력을 퇴보(degrade)시키고, 대규모 농업은 지력을 퇴보시키는 두 과정은 이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통해 하나의 통합적 지평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계기로서 분석된다. 『자본』 1권에서 맑스(1991: 225-226, 233, 635-636)는 인간이 “자신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노동]에 의해 매개하고 조절하고 통제한다”고 하면서, 물질대사를 “자연이 부과하는 인간의 영원한 존재 조건”으로 칭한다(7장).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 “인간과 토지 사이의 물질대사적 상호작용의 교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든

⁵ 제1차 농업혁명은 17세기 이래 두 세기 동안 이뤄진 인클로저 운동과 환금작물 생산으로의 점진적 변화 과정을, 제2차 혁명(1830~1880년대)은 토양 저하에 대한 대응으로서 비료산업과 토양화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를, 제3차 혁명은 20세기에 기계경작, 동물의 대규모 집중사육, 식물 유전자 조작, 화학 비료·제조제·살충제의 집중적 사용이 이루어진 것을 뜻한다(Foster, 1999: 373-374)

부의 원천 — 토지와 노동자 — 을 동시에 파괴”한다는 것이다(15장).

포스터는 “물질대사” 개념이 사용된 여러 저작들을 추적하여 맑스가 결코 자연을 사회와 분리된 환경으로 부차화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위에서 언급한 『자본』 1권과 3권 외에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을 비롯한 『자본』의 초고들(1857~1863), 『아돌프 바그너에 관한 노트』(1880), 엥겔스의 『반듀링론』(1877~1878)과 『자연변증법』(1873~1883)에서도 이 개념은 등장한다. 포스터(2016: 339, 347)는 이 개념이 “생명체가 외부의 자연환경과 맺는 지속적인 물질대사적 상호교환”(엥겔스, 1989: 314)이라는 생태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상품생산하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 전방위적 욕구와 보편적 수용능력 간의 일반적인 사회적 물질대사 체계”(맑스, 2000, I: 138)라는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자가 생명체에 보편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 특유한 것이다.

포스터는 이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인간과 땅, 도시와 농촌의 관계뿐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의 산업화와 식민지의 농촌 수탈 간의 관계로도 연장한다. 마르크스(1991: 883)는 물질대사 균열이 일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초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포스터(2016: 352)는 아일랜드의 저질 토양은 잉글랜드가 간접적으로 수출한 것이라는 『자본』 1권 25장의 서술에 주목하면서, 아일랜드의 농촌 수탈에 대한 리비히의 분석을 함께 언급한다. 나아가 포스터는 미래 세대에게 지구를 좀 더 나은 상태로 물려줘야 한다는 『자본』 3권 46장의 구절을 상기시키며, 마르크스(1990: 954)를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급진적 옹호자로서 자리매김한다. 포스터는 이렇게 오랫동안 맑스주의적 논의의 초점에서 비껴나 있었던 “물질대사” 개념을 무대의 중심으로 불러내어 맑스가 자연을 주변화했다는 오명을 벗겨 냈다.

포스터가 맑스의 “물질대사” 개념에 주목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다. 그가 각주에서 밝히고 있듯, 그보다 앞서 헤이워드(Hayward, 1994)와 메자로스(Mészáros, 1995)는 맑스의 저작에서 이 개념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헤이워드는 맑스의 개념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맑스가 관심을 노동에 국한시킴으로써 생태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지를 펴고 있고, 『요강』의 통찰을 현대 자본주의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 메자로스의 저작은 생태적 관심보다는 자본주의를 하나의 “사회적 물질대사 통제 양식(mode of social

metabolic control)”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저술된 것이다. 포스터가 개념화한 “물질대사 균열”은 메자로스의 맑스에 대한 충실성과 헤이워드의 생태적 관심의 교집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생태적 지속불가능성과 이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맑스를 생태주의자로 재구성해 내었다. 이후 이 개념은 21세기 생태 맑스주의의 주춧돌 역할을 하면서 그 담론이 확장되는 데에 기여하였다.

2. 가치 형태 분석

버킷(Burkett, 1999)은 포스터의 저작에는 빠져 있는 자연과 가치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을 발전시킨다.⁶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좁게는 제1기 생태 사회주의자들을, 넓게는 맑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생태주의자들을 예상독자로 삼는다. 그는 맑스를 비판하는 생태주의자들이 가치 분석의 양적 측면만을 시각의 근거로 활용할 뿐,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맑스의 통찰이 담겨 있는 질적 측면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한다(Burkett, 1999: 262). 또 맑스의 잉여가치론이 부의 생산에서 자연의 기여를 무시하고 인간 노동을 특권화한다는 비판에 맞서, 그러한 관점은 맑스가 노동을 인간과 자연 양자가 참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을 무시하고, 가치와 (사용가치로서의) 부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맑스가 자연 조건을 사회 발전의 불변적·정태적 요소로 간주했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맑스의 비판 대상였다고 정정한다. 곧 자본주의의 계급착취적 특징이 비인간 자연의 진화로부터 인간의 물질적 진화를 분리하였다는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에 대한 버킷의 생태적 독해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두 가지 분리를 전제한다. 자본주의는 직접생산자를 필수적 생산조건으로부터 분리하고, 도시와 농촌을 분리한다. 맑스는 이 두 분리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파괴되는 현

⁶ 포스터(Foster, 2000: 282)는 자신의 논의가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보려면 버킷(1999)을 보라고 권하면서, 맑스의 자연관과 경제적 가치 분석을 자신의 저작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을 비판하였고, 공산주의를 통해 이 두 분리를 해체함으로써 인간의 본성과 자연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 이론이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버킷은 맑스의 핵심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가치 형태 분석과의 연관 속에서 자신의 생태적 정치경제학 비판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생태적으로 재독해한 가치형태 분석을 살펴보자.

교환가치가 부의 생산을 조절하는 경제로서, 자본주의는 사회의 개별 구성원들이 필수적 사용가치를 상품 형태로 (자신이 상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화폐를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시장 외부에서 필수적 사용가치를 획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을, 곧 필수적 소비수단이 상품 형태를 띠어야 함을 전제한다. 이것이 바로 직접생산자들과 그들의 재생산조건들 간의 사회적 분리다. 마르크스(1991: 4)가 생산물의 상품 형태를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적 세포 형태”라고 부른 것은 상품 생산이 생산의 일반적 형태가 되고, 노동 자체가 상품으로 등장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화폐 관계가 그 생산에 고유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세포 형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자본-임금 노동 관계의 발생은 맑스가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라고 부른 것을 전제하는데, 이 과정은 인간과 자연(적 재생산조건)의 사회적 결합을 해체하여 분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이제 자본은 자유로운 노동력으로부터 노동을 추출하여 이를 판매가능한 사용가치에 대상화하고, 이 관계들은 가치의 일반적 등가물인 화폐에 의해 매개됨으로써, 교환가치에 대한 사용가치의 종속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적 조건에 결합되었던 인간의 욕구에 대한 자연의 제약을 느슨하게 만든다. 이전까지는 대체로 한정된 욕망의 범위에 의해 제한되던 잉여노동에 대한 무제한적 욕망이 등장하게 된다.

인간의 재생산 과정과 결합되어 있던 자연은 분리되자마자, 생산과정에서 인간과 “생산적으로” 결합한다. 곧 자연이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에서 무상으로 전유된다. 버킷(Burkett, 1999: 65)은 이를 노동과 자연에 대한 자본의 분할통치라고 부른다. 이 분할통치와 생산적 결합은 분업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자본이 모두를 위해서 실을 뽑고 옷감을 짜며 옷을 지음으로써, 간단히 말해서 이전에는 직접적인 사용가치로 창출된 상품들을 교환가치들로 만듦으로써 국내 시장을 창출”하고 “모든 농촌 부업을 멸망시킨다.” 이제 농업은 도시에서 생산

한 화학비료와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매뉴팩처는 농업의 필수적 산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맑스(2000, II: 142, 161)는 이처럼 각 산업의 “자연적 기반을 제거”하고, 그 산업의 생산 조건을 외부의 일반적 맥락과 연결짓는 것이 바로 “자본의 경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과 자연은 모두 부의 생산에 기여한다. 자본주의적 분업은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힘입어 자연 속의 사물, 힘, 생명들을 전유하면서, 이들을 태동하고 있는 전체로서의 자연 안에서(in)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서(through) 발전한다. 맑스는 이 이윤에 의해 추동되는 자본주의적 생산력 증가가 자본이 조직하는 노동의 전 부문에서 “자연의 전 측면을 종속시키려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버킷(Burkett, 1999: 67)은 이를 “자본의 노동 포섭은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자연 포섭을 내포한다”고 해석한다. 노동과 자연에 대한 자본의 이러한 이중 포섭을 수반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연 속에서 사용가치를 끊임없이 발견해 내고 전유하고, 그 영역을 전 지구적 규모의 생명권(biosphere)으로 확장하면서 특수한 자연조건이 생산에 부과하는 제한들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자본주의하에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가치(추상(동질)적인 사회적 노동시간)에 종속시키는 것은 사용가치의 질적 차이를 사회적 추상을 통해 배제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가치는 부의 자연적 기초와 실체가 사상된 형태, 곧 (화폐화된) 교환가치의 형태를 띠게 된다(Burkett, 1999: 82). 이렇게 한 상품에 내재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모순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부의 형태와 부의 자연적 기초와 실체 간의 모순이다. 자연은 사용가치의 생산에 기여하지만 자본주의는 순전히 양적인, 사회-형태적인 추상에 의해 부를 재현한다. 이 체계에서는 부와 인간의 욕구 충족에 대한 진정한 자연의 기여가 아니라, 상품생산에서 자연을 전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노동시간에 의해 가치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가치형태의 생산과 더불어, 사용가치는 지속가능한 자연에 대한 필요,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는 필요를 비롯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되지 않고, 교환가치 획득의 수단으로 생산된다. 자본주의는 인간과 비인간 자연을 생산의 필수적 부분으로서만, 곧 그것들을 판매해서 이윤을 거둘 수 있는 사용가치 안에 대상화될 수 있는 한에서만 정당화한다. 이는 부의 진정한 원천인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다

양성을 무시하고 동질화하는 것이다.

버킷은 이러한 가치형태 분석을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극히 편협한 태도를 꼬집는 『침묵의 봄』의 한 구절과 연결시킨다(Carson: 1962, 62). 즉각적 효용이 있다면 키우고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는 인간의 행위는 가치 형태의 추상에 깃들어 있는 자연적 조건들의 단순화·동질화 경향에 다름 아니다. 자연의 다양성은 이윤을 위해 희생된다.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자연과 인간 자신을 소외시킴으로써 인간존재를 추상으로 변화시키는 자본주의의 경향 때문이고, 비인간 생명의 일상적 파괴는 바로 이 소외의 한 측면이다. 또한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로 중산층 이상에게는 호소력을 갖지만 생계 꾸리는 것이 고달픈 하층 계급에게 별 공감을 사지 못하는 현실 역시 필수적 사용가치에 대한 접근권이 계급 차별적인 자본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인간소외의 주요 특징인 것이다. 필요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이외의 식물들은 모두 제초제로 제거하는 “자연에 대한 무차별 살상행위(shotgun approach to nature)”는 잡초뿐만 아니라, 곤충과 미생물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생명의 그물로 이뤄진 토양 공동체”까지 파괴한다. 이는 “화폐의 해체 작용(dissolving effect of money)”, 곧 사용가치의 차이들을 동질적인 교환가치로 변환시키는 것에서 비롯된다(맑스, 2000, III: 107). 버킷(1999, 87)에 따르면, 이 화폐의 동질화 압력이 바로 “자연이 우리의 풍경(landscape)에 거대한 다양성을 부여하였지만, 인간은 이를 단순화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Carson, 1962: 10, 55, 62).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연을 무상으로 전유한다. 그런데 마르크스(1990: 916)가 생산에 투입되는 자연의 특정 사용가치들을 “자연이 자본에게 준 공짜 선물”(『자본』 3권 44장)로 언급한 것을 제1기 생태사회주의자들은 맑스가 반생태주의자라는 증거로 종종 제시하였다. 곧 자연자원의 한계에 대한 심각한 경시가 맑스(주의)의 가치 분석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버킷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반박을 제기한다. 맑스의 정의에 따르면, 생산의 자연적 조건들은 사용가치의 생산에 기여하지만 생산된 상품의 총가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무상전유되는 자연은 교환가치의 형성에는 관여하지 않고 사용가치의 형성에만 이바지하므로 자본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자본』 1권 8장). 다시 말해, 이 공짜 선물은 노동과정에 투입되어 사용가치를 생산하지만, 가치증식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공짜 선물”이라는 언급이 결코 자본주의의 낭비적 사용 경향에 대한 승인과 동일시될 수 없다. 비판자들은 맑스가 자연을 자본 축적의 조건으로 환원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경시한다(devaluing nature)”고 비판하지만, 맑스의 분석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이 자연의 “가치 부정(devaluing)”을 자본주의적 생산에 내재적인 것으로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다. 이 무상전유된 자연은 자본의 힘으로 변환되어 통제력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외부적 권력으로 나타난다. 한 때는 노동과 생명활동의 일반적 조건이었던 자연이 이제 사회적 권력으로서의 자본에 결합되어 그들로부터 “소외된 환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전유” 개념은 맑스가 자연을 경시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맑스가 공산주의로의 이행 계획에서 인간과 자연적 조건들을 재결합시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곧 버킷은 이를 비착취적 생산관계들을 통해서 자연적 부의 비착취적 사회화를 상상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기 위한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포스터와 버킷의 주장 모두 맑스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자연의 역할이 이미 맑스의 저작 속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포스터의 “이중소외”, 버킷의 “이중분리”와 “이중포섭” 개념들은 모두 맑스주의 내부에서도 부당하게 경시되어 왔던 자연을 그 온당한 자리에 두고자 하는 이론적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터와 버킷의 저작들은 출판 직후부터 생태 맑스주의 진영 안팎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 저작들이 발표되자마자 무어(2000a; 2000b; 2001)는 이들의 작업과 브로델과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을 생태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종합하여 오늘날 세계생태 분석의 기초를 세운다. 특히, 물질대사 균열과 가치형태 분석은 그의 이론 체계에서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어(2003a)는 자본주의가 단지 정치경제의 체계일 뿐만 아니라, 특정 시공간에서 등장했다가 언젠가 사라질 역사적 체계를 강조하면서, 이 체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전개되어 오는 과정에서 물질대사 균열이 어떠한 동학을 구성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역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의 기원의 문제를 재론하는 것이다. 또 물질대사의 흐름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주의 또한 한 나라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분석단위의 문제를 거론한다(Moore, 2001). 이 주제들은 모두 자본주의 이행 논쟁에 대한 과거 월러스틴(Wallerstein, 2013[1974])의 견해⁷를 생태적 관점에서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무어는 포스터와 버킷이 정초한 생태 맑스주의적 논의의 초점을 이론에서 세계역사로 옮김으로써 역사적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물질대사 균열과 가치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 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계 분석과 생태 맑스주의가 훗날 그가 “세계생태” 분석이라고 명명한 종합 속에 이론적 계기들로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III. 세계생태 분석의 형성과 성장

월러스틴(2013: xix)은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본인의 설명이 자연과 환경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난감해하던 차에 무어가 『근대 세계체계』 제1권을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등장에 관한 생태사적 서술로 독해를 해냄으로써 자신을 궁지에서 구해 줬다고 한 바 있다. 무어의 저작들을 읽고 나서야 월러스틴도 자신의 저작에 그렇게 많은 생태적 고려들이 담겨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한다.⁸ 원래 “세계 생태(world ecology)”라는 말은 『근대 세계체계』 제1권에 등장은 하지만, 이후 월러스틴(2013: 77)의 분석에서 개념적 위상을 획득하지는 못한 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무어는 이 말을 “세계생태(world-ecology)”라는 중심 개

⁷ 무어의 세계생태 분석의 형성에 기본적인 역할을 한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의 개요에 대해서는 월러스틴(2005), 백승욱(2006), 김철규(2016)를, 그리고 그 분석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이광근(2020)을 볼 것.

⁸ 이 장면은 젊은 월러스틴이 브로델에게 자신의 작업이 탁월한 세계체계 분석임을 말하기 전까지 브로델은 자신의 작업이 세계체계 분석인 줄 몰랐다는 에피소드를 연상케 한다. 아리기(Arrighi, 1998: 123)의 전언에 따르면, 브로델이 월러스틴의 작업들을 읽은 것은 그 만남 이후이며, 세계체계 분석의 내용이 1979년 출판된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제3권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에 주목했던 아리기의 『장기 20세기』는 브로델과 월러스틴 간의 이론적 긴장이 그 밑바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념으로 취하면서 자신의 이론 체계의 머릿돌로 삼았다.⁹ 처음에는 “사소한 용어 활용(trivial terminological maneuver)”였지만, 이를 “실질적인 문제설정(substantive problematique)”으로 발전시킨 것이다(Moore, 2003c: 447).

이 새로운 문제설정 위에서 무어는 자본주의에 관한 맑스, 브로델, 월러스틴 등의 방대한 이론적·역사적 연구들 속에 산재되어 있던 생태, 자연, 환경, 기후, 식량, 연료, 토양, 해류, 인구, 농업, 재생산 등에 대한 개별적 언급들을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인 세계생태 분석의 핵심적 계기로 편입시켜 자본주의와 세계생태에 관한 새로운 총체적 접근을 출범시켰다. 특히 그는 『근대 세계체계』 제1권의 생태적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상품 프런티어 이동에 대한 자신의 연구로 보완함으로써, 세계역사적 시각으로 자연을 다시 들여오고 (bringing nature back in),” 동시에 사회 이론을 환경사로 통합하려는(incorporating) 일관된 노력을 시작한다(Moore: 2000b, 357). 이 절에서는 세계생태 분석이 전개된 과정을 두 시기로 나눠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는 세계생태 분석의 형성기로 무어가 생태 맑스주의의 시각으로 세계체계 분석을 재구성했던 2003년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세계생태 분석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기는 그의 첫 단독 저서인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2020[2015])가 출판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보고, 이 분석이 초기의 문제설정에서 어떻게 더 성숙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체계 분석의 생태 맑스주의적 재구성

2003년 한 해 동안 무어는 꽤 긴 논문 세 편을 발표했는데, 이 해를 세계생태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포스터와 버킷의 연구가 생태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맑스 구하기의 성격을 띠었다면, 무어의 이 논문들도 생태적 비판으로부터 월러스틴 구하기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절에서는 무어가 어떻게 『근대 세계체계』 제1권을 환경생태사적으로

⁹ 하이픈(-)이 들어간 “세계생태(world-ecology)”가 처음 등장한 것은 Moore(2003b)부터이고, 이전 저작들에는 애초에 월러스틴이 쓴 것처럼 하이픈 없는 “세계 생태(world ecology)”로 쓰였다.

재구성하였는지 살펴본 후, 이 재독해의 이론적 함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1)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생태적 재구성

무어(2003b)는 『근대 세계체계』 제1권이 역사사회학뿐만 아니라, 역사지리학적 견지에서도 훌륭한 저작이라고 평가한다. 곧 무어는 이 책이 세계 시장 형성과 계급갈등, 국가 형성, 농업생산양식의 지역적 변동 패턴들이 서로를 규정하면서도 규정받는 상호형성 과정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역과 지구(local-global)라는 상이한 두 규모(scales) 간의 변증법적 긴장을 지리학적으로 잘 다뤘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는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월러스틴의 작업을 새로운 지리적 “공간의 생산”에 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관찰하여, 이 연구의 네 가지 역사지리적 계기들을 구분한다(Moore, 2003b: 311). 이 계기들은 각각 균등화(equalization), 팽창(expansion), 양분(divergence), 그리고 농업생태적 전환(agro-ecological transformation)이다. 첫째, 새로운 지리적 규모의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이전에는 각기 존재하였던 북해 세계경제와 지중해 세계경제가 단일 분업을 구성함으로써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 경쟁적 세계 시장을 통해 매개되는 상품생산의 균등화(와 동질화) 경향이 등장하게 된다. 둘째, 봉건제의 위기 와중에서 전개된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지리적 팽창이 자본주의적 발전의 경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로부터 끊임없는 자본 축적에 조응하는 공간적 과정으로서 끊임없는 지리적 팽창이 전개된다. 셋째, 세계적 관계 내에서 핵심부(서유럽)와 주변부(동유럽과 아메리카)로의 양분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넷째, 이 세계경제 전체에서, 그리고 특히 주변부, 곧 동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농업생태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세계생태가 근본적으로 재형성된다.

이 네 계기들은 위기, 팽창, 이행의 세 국면들을 관통하며 작동한다. 월러스틴(2013: 60-66)은 14~15세기 서유럽 봉건제의 위기와 16세기의 팽창을 자본주의 세계경제 등장의 “전주곡이자 배경”으로 칭하면서, 그 과정에서 작동하였던 생태적 요인들에 지면을 할애한다. 여기에서 그려진 봉건제의 위기란 기후 변동과 지력 감소가 만성적 과잉착취와 이에 대항한 반란과 겹친 “사회물리적” 콩종크 튀르상의 변동이었고, 그로부터 전개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세계 생태”의 획기적 재조직을 수반하였다. 그리고 이 위기와 이행이 유럽 세계경제의 팽창이라

는 계기를 통해 매개된다(윌러스틴, 2013: 63, 77; Moore, 2013b: 312).

이 위기, 팽창, 이행의 과정 속에서 생태적 요소들은 사회변동에 늘 개입했다. 농업생산성이 노동생산성보다는 토지생산성에 의해 좌우되던 봉건 유럽에서 11~13세기 동안 인구 증가로 인해 영주의 수입도 증가했으나, 소비하기로 접어들던 1300년경부터 중심지에서의 인구과잉과 한계 지역의 확장으로 인해 토질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영양실조와 과잉착취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힘들었고, 이미 시작된 인구 감소가 1348년 흑사병 발발로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어 농업의 침체와 이로 인한 영주 수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또 이제 막 성장하려던 영토국가와 교회의 위기로 번졌고, 도시 자본가들의 시장 축소로 이어졌다. 요컨대, 봉건제의 위기는 단위농토당 노동력 비율을 감소시켜서 농민들의 교섭력을 신장시켰지만 당시의 지배집단였던 국가, 영주, 도시 자본가들 모두에게 위기였다.

국가들은 전쟁 수행을 위해 농민들로부터 고율의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였지만, “유동성 위기”의 심화에 직면하였다. 영주들은 13세기 후반부터 빈발한 농민반란에 시달리면서 전체 인구의 감소와 농민들의 교섭력 증가로 인해 노동력 확보에 애를 먹어야 했고, 농업보다는 일손이 덜 필요한 목양 사업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포르투갈에서 영주는 작은 아들들에게 해외원정의 지도자가 될 것을 권했고, 에스파냐는 신대륙에 자국민들을 정착시키면서 원주민들의 가축 사육을 금지하고 정착민들에게만 목양을 허용함으로써 인클로저를 수출하였다(윌러스틴, 2013: 88, 291). 또 줄어드는 시장에서 경쟁하다가 베네치아에게 밀려난 제노바 금융업자들은 이베리아 제국의 팽창에 필수적인 자본을 공급하게 된다. 이 세 위기집단의 이해관계가 해외 팽창의 개시와 지속으로 수렴된 것이다. 주변부의 편입은 해당 지역의 노동통제양식뿐만 아니라 단일작물재배로 인해 생태 환경도 변화시켰다. 16세기부터 아메리카로부터 유입된 금은과 곡물은 식량 부족 같은 “자연의 도전”에 맞서 아직은 취약했던 유럽 세계경제를 “보호하면서 팽창의 추진력을 유지해 주었다”(윌러스틴, 2013: 123; Moore, 2003b: 318). 이렇게 “방대하지만 취약한” 세계경제가 등장했던 것이다.

무어(Moore, 2003b: 322)는 자본주의의 등장에 관한 이러한 설명이 세계경제와 세계생태의 변증법적 연결을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 변

환으로 인해 “세계 생태가 유럽에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월리스틴(2013: 77)의 언급을 세계역사적 의미에서 새로운 “자연의 생산”으로 이해한다. 즉 자본주의가 사회적 행위자에게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도 새로운 관계적 우주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경제와 세계생태의 등장 양자가 동일한 세계역사적 과정의 계기들로서, 이러한 “통일 속의 분리(separation in unity)”가 끝없는 자본축적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간의 변증법적 대립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Moore, 2003c: 447).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따로 존재하는 자연과 사회가 상호작용한다는 식의 이원론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해석의 기반 위에서 생태 맑스주의적 해석과 세계체계 분석의 접속이 시도된다. 첫째, 그는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 이론에 입각하여, 월리스틴의 핵심-주변 관계를 도시-농촌 관계처럼 잉여가 불평등하게 일방적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과정에서 월리스틴이 도시-농촌 관계를 다소 경시했지만, 이 관계는 브로델의 저작에서 보다 잘 조명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자본주의를 도시-농촌 간 분업이 지역, 국가, 세계경제 등의 다중적인 규모들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둘째, 그는 버킷의 가치형태 분석을 따라, 『근대 세계체계』 1, 2권에서 월리스틴이 지속적으로 토양과 노동력의 퇴보(degradation)에 주목했으며, 이를 자연의 변환이 곧 노동과정이라는 맑스의 인식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한다. 곧 양자의 퇴보는 인간과 자연 모두가 가치 법칙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맑스의 가치형태 분석을 버킷이 카슨의 생태주의적 서사에 연결시키면서 가치에 의한 인간과 자연의 추상화·동질화 작용을 비판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테일러주의적 시간-동작 연구에 대한 브레이버만(1987[1974]: 162)의 논의와 연결시킨다. 즉,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개별 동작을 동질화하여 마치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취급하는 자본가들의 추상은 맑스가 『자본』에서 구체적 노동의 추상을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 노동과 구체적 자연의 생태적 특정성들은 화폐로 표현되는 가치에 의해 사상되어 동질화된다. 요약하면, 무어는 도시-농촌 변증법을 가치 축적의 지리적 표현으로, 물질대사 균열은 가치 축적의 생태적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그의 세계생태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2) 상품 프런티어의 확장과 위기의 공간적 타개

무어(2003c: 447)는 윌러스틴이 자본주의의 끝없는 축적 요구와 생태적 지속가능성 간의 모순을 분명 인지하였으나, 자본주의에 대한 형식적 이론화 대신에 개념적·역사적 사유를 선호하는 그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이 모순의 기초를 이론화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포스터와 버킷의 생태 맑스주의와 하비의 역사지리유물론을 발판삼아 세계생태 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하고자 시도한다. 이제 도시-농촌 관계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 균열이 핵심-주변 관계를 설명해 준다. 16세기에 번영하던 암스테르담은 발트해 연안의 곡창, 숲, 목장, 탄광에서 생산된 밀, 소, 구리, 목재 등의 자원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이것은 17세기에 그 지역들의 지력 저하와 자원 고갈로 이어졌다(윌러스틴, 1999: 197-202). 곧 핵심-주변 관계에서의 물질대사 균열이 주변부의 노동과 토지의 심각한 퇴보를 야기하였고, 생태적 지속불가능성이 대두된다(Moore, 2003a: 156-157). 이처럼 무어는 물질대사 균열이 템즈강의 오수를 바라보던 리비히와 맑스가 살던 19세기보다 훨씬 전인 장기 16세기부터 작동했던 것으로 보면서 그 균열의 기원을 더 먼 과거로 소급한다.

핵심부에 식량과 자원을 공급하던 주변부의 생산성 저하는 해당 지역의 생태적 고갈뿐만 아니라, 핵심부의 자본 축적과 노동력 재생산에도 위기를 야기한다. 물질대사 균열로 인한 핵심과 주변의 위기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적 장치가 등장한다. 하나는 “상품 프런티어(commodity frontier)”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적 타개(spatial fix)”이다.¹⁰ 상품 프런티어는 홉킨스와 윌러스틴(1986)의 “상품사슬” 개념과 브로델(1972: 66-67)의 프런티어 개념을 조합하여 무어가 고안한 것이다. 상품사슬이 완제품으로부터 생산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며 공정간 흐름에서 잉여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이라면, 상품 프런티어는 이 공정에 투입되는 원자재 생산의 장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윌러스틴과 마찬가지로 브로델도 15~16세기 지중해 경제에 대

¹⁰ 하비가 처음 사용한 이 fix 개념은 우리말로 옮기기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이 개념은 “조정”, “재정립”, “해결책” 등으로 번역되어 왔는데, 어떤 것도 그 본래 뜻을 잘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 바둑의 용어인 “타개(打開)”를 제안한 김현우 선배께 감사드린다.

한 장대한 서사에서 물질대사 균열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잘 보여 준다. 그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자신의 프런티어를 확장하며 배후지들을 확보하여 그들을 “유럽 내의 아메리카(internal Americas)”로 삼았고, 그 곳을 단일작물 경작지로 과잉개발함에 따라 그곳의 생태계가 유린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새로운 지역을 지중해 세계경제에 편입시키면서 상품 프런티어를 확장하는 것이다. 한 곳이 유린되어 황폐화되면 자본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이동성에 주목하여 하비(Harvey, 1994; 2005)가 고안한 “공간적 타개”다. 이 개념은 특정 장소에 ‘고정’되었던 자본이 위기를 ‘수리’하기 위해 그곳으로부터 철수하여 새로운 곳에 다시 ‘고정’되는 과정을 가리키기 위해 고안된 것인데, 이 재배치가 결코 자본의 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곧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행위적 측면과 위기의 근본적 해결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측면을 동시에 포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주변부의 과잉착취와 과잉개발이 노동력과 자원의 소진을 야기하면, 핵심부는 그곳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변부로 이동하여 정착함으로써 그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무어는 어떻게 지역적 생태위기가 자본주의의 지리적 팽창의 반복적 재현으로 이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물질대사 균열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팽창이라는 두 과정을 연결하는 일종의 교량적 개념으로 이 “공간적 타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무어(2003a; 2003b)는 이 개념적 장치들을 이용하여 두 가지 사례, 곧 은광과 설탕 플랜테이션의 이동이 어떻게 장기 16세기 근대 세계경제와 세계생태 변동의 계기로 작동하였는지 분석한다.

제1차 장기 16세기(1460~1530) 동안 중부 유럽의 연간 은 생산은 무려 5배나 증가하는데, 은의 제련에는 많은 연료가 투입되므로 이 동안 은광 주변의 삼림은 전부 벌채되었고, 양질의 은광석도 희소해진다. 이로 인해 은 프런티어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한다. 1600년경 유럽 내에서 생산된 은의 총가치는 이제 신대륙에서 세비아항으로 수입되는 금은 가치의 10%에 불과한 정도로 축소되었다. 당시 신대륙 최대 은광이었던 포토시(Potosi)는 세계 은 생산 중 74%를 담당하였고, 1573년에는 인구 12만이 거주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내의 최대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하여 마드리드, 로마, 파리의 인구를 능가했다. 여느 프런티어와 마찬가지로 과잉개발로 은 생산은 1570년대부터 감소한다. 이 생산성 정체

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제련 과정에 아말감법을 도입하고, 계약노동을 강제 노동으로 교체한다. 이 기술적·조직적 타개의 결과 1575년부터 1590년 사이에는 생산은 다시 6배나 증가한다. 그러나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했던 아말감 기법으로 인해 주변의 삼림은 남김없이 벌채되었다. 노동자들은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하였고, 은광석의 질도 떨어졌다. 이 위기로 인해 포토시 은광은 버려지고, 뉴스페인(멕시코) 중부 은광들이 새로이 개발되고,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전유되고, 버려졌다. 이런 식으로 은 프런티어의 중력 중심이 이동하였다.

설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Moore, 2003a: 143-155). 설탕은 십자군 시절부터 지중해의 섬에서 생산되었는데, 15세기 중반 포르투갈이 북대서양의 무인도 마테이라(Madeira)를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통합시킨 이후부터 그 프런티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원목의 섬(island of timber)”이라는 뜻의 마테이라는 처음에는 조선업에 필요한 고수령 원목들을 제공하였고, 더 이상 조선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들만 남게 되자, 큰 나무들이 잘려 나간 곳에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세워졌다. 1456년부터 1494년까지 마테이라의 설탕 생산은 80톤에서 1,300톤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남은 나무들은 설탕 제조과정에 필요한 땀감으로 무차별 벌채되었다. 애초에 울창했던 삼림이 사라지자, 설탕 공장은 땀감과 석탄이 비교적 풍부하였던 북서유럽으로 이동하고, 그 섬에는 설탕 플랜테이션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예들만 남게 되었다. 플랜테이션의 지속으로 이 섬의 지력과 노동은 계속 악화되었고, 더 이상 사탕수수 재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러자 사탕수수 재배는 신대륙의 브라질로 이동하고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고, 다시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동하며, 설탕 프런티어가 확장된다.

요약하면, 은과 설탕 프런티어의 확장 과정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팽창의 계기이며, 물질대사 균열의 지구적 확대재생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상품 프런티어의 착취와 전유는 노동과 자연을 퇴보시킨다. 자본주의는 등장부터 그 세계경제의 외부에서 노예를 조달해 노동력으로 이용하며 착취하였고, 플랜테이션의 대규모 단일작물 재배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에 필수적인 종 다양성을 파괴하였다. 해당 지역의 황폐화는 핵심부의 자본 축적과 재생산의 위기 또한 초래하지만, 자본은 이 위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타개한다. 그리고 자본이 가는 곳마다 노동과 자연은 동질화되어 전유된다.

무어가 2003년에 이 논문들을 발표했을 때,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 당시는 아민, 아리기, 프랭크, 그리고 월러스틴이 모두 왕성히 활동을 하던 때였다. 당시 세계체계 분석을 공부하던 학생들은 금융화를 비롯하여 아리기와 실버의 저작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골몰해 있었다. 생태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체계 분석을 재구성하겠다는 야심만만한 젊은 지리학자 무어가 오늘날처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4년 인도양 쓰나미, 2009년 인류세 워킹그룹의 창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빈발하는 산불, 그리고 조류독감, 메르스, 오늘날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어지는 질병의 전 지구적 감염 상황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막론하고 그 누구도 이 환경생태 담론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지구적 생태위기 와중에 2013년 빙햄턴대학교 사회학과에 임용된 무어는 자신의 세계생태 분석을 더욱 세련되게 가다듬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2020[2015]), 『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편저, 2016),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파넬과 공저, 2020[2017]) 등 논쟁적 저작들을 해마다 출판하였고, 이는 매우 빠르게 학계와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¹¹

2. 세계생태 시각: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에 대한 본격적 검토에 앞서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이후 무어의 세계생태 분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자. 첫째, 초기의 연구가 장기16세기에 발생한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현재진행형인 신자유주의의 위기에까지 관심을 넓혀 동시대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식으로 분석의 시간적 지평을 확대하였다(Moore, 2010). 이를 그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초기에는 “세계적 과정”에 얽혀 있는 지역사 연구에 치중했다면, 최근의 작업은 세계역사적 과정을 관계적으로 구성하고

¹¹ 무어의 이 작업들에 대한 호의적 논평의 대표적 사례들로는 Haraway(2016: 47-51, 100-101)와 Fraser and Jaeggi(2018: 90-96)를 들 수 있다.

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무어, 2020: 59). 특히 그가 자본세(Capitalocene)¹² 논쟁을 개시하면서 600여 년에 이르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세계생태의 역사 전반이 그의 분석 지평에 포함되었다. 둘째, “세계생태” 개념의 고안에서도 알 수 있듯, 더욱 많은 개념들이 그의 세계생태 분석의 주요 이론적 계기들로 포섭된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그물”, “생태적 잉여의 저하경향”, “부정적 가치”, “저렴한 자연/식량”, “물질대사 전환”, “자본세” 등 각각의 개념들이 다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셋째, 2010년대 이후부터 “추상의 폭력”, “현실 추상” 등 변증법적 추상의 독특한 관점들이 역사적 연구와 결합되면서 방법론적 성숙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넷째, 이 과정에서 초기에 그에게 이론적 자양분을 제공하였던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 이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여 생태 사회주의 이론 전반에 큰 파란을 몰고 왔다. 이제 “세계생태”는 맑스, 브로델, 포스터, 윌러스틴 등을 열심히 공부하였던 청년 지리학도가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현재의 생태적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집합적 입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생태 분석의 현재적 집약판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는 그 제목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생명의 그물”은 “자연 전체”(20쪽)인데, 이것은 II장에서 보았듯, 『침묵의 봄』에서 카슨이 무수하고 다양한 여러 생명체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자연 전체라는 의미로 생명권(biosphere)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¹³ 이 말은 때로는 “오이케이오스”¹⁴로 쓰이기도 한다. 버킷이 자본주의적 분업은 자연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발전한다고 보았듯, 무어도 이 오이케이오스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in and through) 역사적 행위자가 활동하면서 자연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영향받

12 무어가 편집한 『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 이후 유명세를 탄 “자본세” 개념은 말름이 2009년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Haraway, 2016: 184)

13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의 국역자는 역주까지 달아 이를 카프라가 고안한 용어로 친절하게 잘못 소개하고 있다(무어, 2020: 21). 그런데 역자의 이러한 오해가 이해도 되는 것이 『침묵의 봄』 국역판에서 “web of life”는 모두 다른 말들로 유려하게 의역되어 있다. 이 책의 영어 원본에서 web of life(혹은 lives)는 일곱 번이나 등장한다(Carson, 1962).

14 그리스 철학자 테오프라토스가 고안한 “오이케이오스 토포스(oikeios topos)”의 줄임말로, 원래 “생명활동에 최적화된 자연” 혹은 “식물종과 환경의 관계”를 뜻한다.

는 상호구성적·공진화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본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에 대한 그의 개념화를 따라가보면,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도 사회체제도 아니고 “자연을 조직하는 방법”(20쪽)이고, “생명의 그물 속 자본, 권력, 재/생산의 세계생태”이며, “생명의 그물 속에서 인간 자연과 비인간 자연이 공동생산한 것”이며, “가치 법칙, 곧 저렴한 자연의 법칙에 의해 응집된 것”(39쪽)이고, “특정 자연과 함께 묶인 인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와 과정(process)이 함께 공동생산한 역사”(47쪽)이며, “자본 축적, 권력 추구, 자연의 공동생산을 결합하면서 진화하는 전체”(47쪽)이고, “프로젝트와 과정의 특정한 변증법”(91쪽)이고, 하나의 “생태체제(ecological regime)”이다(260쪽). 이것은 자본주의의 정의(definition)가 아니라 속성(properties)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소절에서는 초기에는 없었지만, 위의 속성들을 포착하기 위해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에서 새로 등장한 논쟁적 개념화들을 추적하여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시각으로서 세계생태 분석을 구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착취와 전유

버킷의 가치형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 기존의 맑스주의 가치 이론에서 자연은 노동과정에 투입되어 사용가치의 생산에 기여할 뿐, 가치증식과정에 투입되지 않으므로 가치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가치형태에 대한 고려만 있을 뿐, 그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력의 담지자가 어떻게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고려는 이론적으로 배제된다. 맑스의 잉여가치 이론은 노동자의 재생산이 시장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에는 임금노동자가 아닌 다른 이들과 자연의 일 역시 필요한 것이다.

사실 잉여가치 이론과 역사적 자본주의의 현실 간의 이러한 괴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함께 병존하는 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1960년대 이래의 논쟁들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핵심부 내부에서는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의 교차점에서 가사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성격에 관해 일련의 논쟁들이 이뤄졌고, 주변부 자본주의의 성격 규명에는 라틴 아메리카 생산양식 접합론 논쟁을 비롯하여 아시아적 생산양식, 아프리카적 생산양식 같은 기존의 토착

생산양식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간의 접합에 관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¹⁵ 윌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을 포함한 세계역사 연구는 17세기 동유럽의 재판농노제, 19세기 미국 남부와 카리브 연안의 노예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업 주부의 무임 가사노동 같은 비임금노동 형태들을 비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 줄곧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 비임금노동 형태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라는 총체성을 구성하는 계기이지, 그 외부에 독자적으로 상정되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접합되는 독자적 생산양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선배들이 비임금 노동을 자본주의라는 전체 안에 자리매김한 것에서 더 나아가, 무어(2020: 39-45)는 자연의 일도 인간의 노동과 함께 자본주의를 공동생산한다고 본다. 곧 인간의 비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자연도 일을 하고, 이 자연의 일이 잉여가치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잉여가치의 생산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운동하는 가치로서 자본, 곧 추상적인 사회적 노동의 축적과 그 추상노동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분할되는 비율을 규정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결정에는 착취당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의 부분노동과 비인간 자연의 고된 일 에 대한 전유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무어(2020: 100-102)는 자본주의의 가치 법칙이 두 계기들, 곧 자본의 끝없는 축적, 그리고 착취와 전유 관계의 끝없는 확대로 구성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자본은 추상적인 사회적 노동의 “가치형태”를 뜻한다. 반면 착취(exploitation)와 전유(appropriation)는 하나의 유기적 전체를 공동구성하는데, 이것은 가치형태가 존재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더 넓은 “가치관계”를 뜻한다. 따라서 양자는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같지 않다.

기존의 맑스주의 잉여가치 이론과 무어가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지점이 몇 군데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중 중요한 세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무어(2020: 45)는 이전까지 호환되어 쓰이던 착취와 전유를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착취는 자본이 형태를 바꾸며 순환하는 회로 내부의 생산과정 안에서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인 노동력 중 잉여노동을 제외한 필요노동의 가치를 지급받는다. 반면, 전유는 “상품체계 바깥

¹⁵ 전자의 전개와 쟁점들에 대해서는 김원태(2013), 고정갑희(2013), 정성진(2013)을, 후자에 대해서는 Laclau(1971), Fogel(1988), Cocquery-Vidrovitch(1975), Freund(1985)를 볼 것.

의 무상 일을 찾아내고 확보하여 자본의 회로로 보내는 비경제적 과정”을 가리킨다. 임금노동 착취가 일반화되려면, 이 전유가 일반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무어(2020: 306-307)는 가치의 생산과 축적이 스스로 형성되지만, 자신의 구성적 외부가 없다면 형성될 수 없다는 가치의 역설을 제기한다.

둘째, 그는 이 가치법칙이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등장한 장기 16세기를 통해 “방대하지만 약하게” 구체화되었다고 본다. 가치법칙을 경제적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맑스주의자들은 실제로 그것이 언제부터 작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그에 비해 무어는 가치법칙의 작동을 경제적 계기가 내장되어 있는 더 큰 체계적 과정으로 상정한다. 따라서 가치법칙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등장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화는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장기 16세기를 거쳐 등장한 이래로 오늘날까지 생계를 임금노동에만 의존하는 프롤레타리아 가계보다 다른 소득에도 의존하는 반프롤레타리아 가계가 역사적으로 더 비중이 크다고 한 월러스틴(2005: 80-89)의 견해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자본 축적에 대한 여성, 자연, 식민지의 저평가된 혹은 무상의 기여를 강조한 미즈(2014[1986])의 견해를 이론적 계기로 포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기존에 맑스주의 내에서 진행되었던 가치 전형논쟁이 가치의 가격으로의 전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무어(Moore, 2015: 199)의 가치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일이 가치로 전형되는 과정(the transformation of work into value)”으로 그 초점을 옮긴다. 자본의 회로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이 가치 관계는 오이케이오스를 통해서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따라서 자본, 곧 운동 중인 가치(value-in-motion)는 “자연 속 가치(value-in-nature)”이기도 하다. 이제 추상적인 사회적 노동에 병행하여 추상적인 사회적 자연이 문제가 된다. 전자가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자본-노동 관계를 지칭한다면, 후자는 자본-무상 “일”의 관계를 지칭한다. 전자에서 문제가 되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필연적으로 자연과 부분노동을 수행하는 인간 모두의 기여에 의해 좌우되므로, 양자는 분리 불가능하다. 다양한 구

¹⁶ 이 부분에서 무어(2020: 101)는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에 대한 로빈슨(Joan Robinson)의 유명한 논평 — “착취당하는 일보다 더 나쁜 단 하나의 일은 착취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 을 워트 있게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한다. “착취당하는 일보다 더 나쁜 단 하나의 일은 전유당하는 것이다.”

체적 노동들이 자본주의적 통제하에서 동질화되어 착취의 정도와 가능성이 양적으로 측정되는 추상적 노동으로 변모하듯, 질적으로 상이한 구체적 자연도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자본주의적 통제를 통해 전유 가능성과 정도가 양적으로 측정되는 추상적 자연으로 변모한다. 이제 “시간은 직선적인 것으로, 공간은 평평한 것으로, 그리고 자연은 외부적인 것으로 표상”된다. 이 추상적인 사회적 자연은 장기16세기에 등장한 기계식 시계를 통해 초 단위로 분할되고, 축적을 통해 지도로 제작되고, 프랑스 혁명 이후 일반화된 미터법에 의해 측정된다. 무어(2020: 112-113, 327)는 이 “수량화 혁명”을 자본주의가 세계를 자본 자신의 이미지에 따라 창조한 것으로 해석한다.

2) 저렴한 자연과 부정적 가치

이 추상적 자연의 창출은 자본주의의 프로젝트로서 구체적 노동과 구체적 자연의 특수한 차이들을 사상하여 양적 차이만 존재하는 “경제적 등가물”로 변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추상화된 자연은 가치의 실체인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감소, 곧 잉여노동의 증가를 위해 무상으로 전유된다. 자연이 무상으로 혹은 저렴하게 전유되면 될수록 자본축적은 증대된다. 무어(2020: 99)는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가치 법칙은 바로 “저렴한 자연(Cheap Nature)”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저렴한 자연들(four Cheap Natures), 곧 저렴한 식량, 노동력, 에너지, 원료는 노동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감축을 가능케 한다.¹⁷ 이 저렴한 자연들을 확보하기 위해 결정적인 것이 상품 프런티어의 재배치였고, 이 과정이 장기 19세기와 장기 20세기 세계생태의 내적 재구성과 외적 팽창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초에 이르러 새로운 프런티어들로 이동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프런티어를 수평적 확장이 아니라, 셰일가스 개발처럼 수직적 시추를 통해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유한하기는 마찬가지다. 또 전유의 프런티어는 초기

¹⁷ 파텔과의 공저에서는 네 가지 저렴한 자연이 아니라, 일곱 가지 저렴한 것들(things)이 자본세의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논의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자연, 화폐, 노동, 돌봄, 식량, 에너지, 생명이 포함된다(파텔·무어, 2020).

에 그가 관심을 가졌던 자연 자원의 확보를 위한 상품 프런티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폐기물을 버리는 쓰레기 프런티어까지 포함한다. 무어는 전자를 수도꼭지(tap), 후자를 배수구(sink)라 부르는데, 물질대사를 흐름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반영된 메타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프런티어는 모두 유한하다.

유한성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세계는 이 자본주의의 저렴한 자연 프로젝트에 호락호락 순응하지 않는다. 착취당하는 노동자도 전유당하는 부불노동자와 자연도 이 자본의 프로젝트에 저항한다. 자본의 프로젝트와 이에 대한 대항 프로젝트들이 바로 자본주의를 모순적인 역사적 과정(process)으로 만드는 것이다. 착취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이나 부불노동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운동들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쉬운데, 자연은 자본주의에 어떻게 저항하는 것일까? 무어(2020: 431)는 이를 “잉여가치에서 부정적 가치(negative value)로의 이행”으로 표현한다. 곧 이전에는 자연이 무상 전유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잉여가치의 창출에 기여하였지만, 그것이 쉽지 않게 되면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갈수록 크게 산출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장기 20세기의 녹색혁명의 결과 탄생한 유전자변형유기체(GMO) 곡물이다. 화학비료와 화학살충제의 남용은 지속적인 토질 저하의 결과를 낳았고, 이는 저렴한 식량 공급의 지속성을 위협하였다. 이 위기에 대한 기술적 타개책으로서 몬산토는 제초제와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GMO 콩을 개발하여 판매했다. 처음에는 의도대로 수확률을 향상시켰으나, 곧 제초제에 내성을 띤 슈퍼잡초들이 콩밭을 가득 메우게 되었고, 이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한 비싼 제초제들이 개발되고, 또 그 제초제들에 내성을 띤 새로운 슈퍼잡초들이 등장하였다. 위기 타개의 효과가 갈수록 짧아지면서 더 유독하게 된 것이다. 기후 변화 역시 현재진행형인 부정적 가치로의 이행을 잘 보여준다. 거의 무상으로 이뤄지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이 이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원래 역사적 자본주의에서 비인간 자연의 반응은 자본의 통제보다 훨씬 더 느리게 움직였지만,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시간이 가속화된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부터 20세기까지는 공간적 타개를 통해 상품 프런티어를 이동하면서 자연을 전유하는 것이 가능했었으나, 이제 미개발 프런티어는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무상 일/에너지의 전유의 지속은 처음에는 느리게 진행되던 생명권의 독성

화를 가속시켰고, 이 부정적 가치의 축적은 공간적·기술적·조직적·제국주의적 재편으로는 타개될 수 없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 프린티어의 고갈, 생산비용의 상승, 그리고 결과의 예측불가능성이 전유의 정점에서 현재진행형인 잉여 가치에서 부정적 가치로의 이행을 특징짓는 것이다.

3)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물질대사 균열 이론 비판

무어(2020: 50)는 자연(Nature)과 사회(Society)를 각기 분리된 독립적 실체로 상정하는 이원론이 생태주의 진영에도 만연하고 있다고 본다.¹⁸ 이는 추상의 폭력에 의해 정립된 이원론으로서 자연을 자본주의의 계기가 아니라 외부에 정립시킨다. 무어는 세계생태 분석이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대한 도전”이라고 단언하면서, 포스터의 작업들도 이 이원론과 단절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초기의 주요 이론적 자원이었던 물질대사 균열 이론을 겨냥한다(53). 이 자연/사회 (혹은 자연/인간) 이원론 비판은 무어의 원래 전공였던 지리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문지리와 자연지리의 구분이 실제 지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이 되듯, 물질대사 균열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인간(혹은 사회)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는 자본주의 세계생태 역사의 변증법적 전개과정, 곧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포함하며 그 안에서 공진화해 가는 역사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무어는 포스터(Foster, 1999)가 물질대사의 균열을 세간의 통상적 독해처럼 분리(separation)가 아니라, 재구성과 변환(reconfiguration and shift)으로 개념화해 냈다는 점이 탁월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개념화는 자본주의를 “흐름이 열린 물질대사”로, 곧 현상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저렴한 자연의 전유가 필수적인 체계로 사고할 길을 열어 주었다며, 현재 자신의 시각이 그의 기여에 빛지고 있음을 공인한다. 곧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metabolic rift)을 “물질대사 변환(metabolic shift)”과 동일시한다. 그런데 무어는 최근의 물질대사 연구들이 자본주의적 추상의 폭력에 의해 생산된 자연과 사회의 이원론을 극복하겠다는 애초의 약속

¹⁸ 무어는 사회/자연 이원론을 지칭할 때, 항상 Society/Nature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데, 이는 그 개념이 추상의 폭력과 현실추상의 산물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을 지키지 못하고, 이 이분법을 확대재생산한다고 본다. 맑스의 총체적 접근 속에 살아 있던 “사회적 신진대사의 상호 의존과정”을 포스터는 상호분리된 자연과 사회 사이의 교환과정으로, 곧 이원화된 두 실체이자 두 현실추상관념 간의 흐름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사회 체계가 자연 체계를 파괴한다는 그의 인식은 자본주의가 그로부터 외재적인 자연을 파괴한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물질대사는 독립적인 두 실체 사이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물질대사 전환을 주장하는 무어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포스터 비판은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출판 이후 더욱 원색적으로 진행된다. 무어(Moore, 2017)는 포스터와 그의 동조자들이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이원론적으로 사용한 것을 추적하며, 이는 “사회(Society)+자연(Nature)=위기(Crisis)”라는 식의 녹색 산술(green arithmetic)의 최고 단계라고 비판한다. 그는 물질대사 균열 이론의 이 녹색 셈법이 심각한 문제들을 노정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개념화는 생명의 그물 안에서 계급, 자본, 제국이 서로를 공동생산하며 전체로서 공진화한다는 관점을 거부한다. 또 이들이 정치경제를 다룬다고 하지만 자본축적 이론에 대한 재사유도 역사적 연구도 전혀 안 함으로써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힐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질대사 균열 개념을 “새로운 적록 사유의 정전(new Red-Green canon)”으로 자리매김하고, 맑스의 해석에서 자신들과 차이를 보이는 생태적 사유들을 관념론과 구성주의로 치부한다고 비판한다. 이는 (II장의 첫 부분에서 본 바대로) 최근의 무어를 맑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보는 이들의 평가에 대한 무어의 직접적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들의 생태 맑스주의자 명단은 하비를 비롯하여 물리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를 하나의 묶음으로 파악하며 역사지리 유물론을 발전시켜 온 지리학자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무어는 이것이 흑백논리에 다름 아니며, 자본주의와 맑스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포스터의 데카르트주의적 합리성의 가마솥 안에서 가열되어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범주로 단순화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¹⁹

¹⁹ 2014년부터 무어(Moore, 2014; 2020[2015])는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의 이원론적 이론화

지금까지 살펴본 착취와 전유의 구분, 저렴한 자연 프로젝트, 잉여가치에서 부정적 가치로의 이행, 그리고 물질대사 균열 이론 비판은 출판 직후부터 세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00년대 초반 무어가 세계생태 분석을 처음으로 주창했을 때와는 극적으로 다른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이론화는 예상 가능하듯, 그의 초기 분석이 의존했던 포스터가 주도하는 진영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Foster and Burkett, 2018; Saito, 2017). 그러나 무어(2020: 326)는 자신이 맑스의 가치 법칙의 핵심, 곧 자본의 실체는 추상적인 사회적 노동이라는 전제를 수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가치 법칙에 대한 기존의 독해에 의지해서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한계들에 대해 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으로의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IV. 세계생태의 구체적 총체성

지금까지 세계생태 분석이 하나의 독창적 시각으로 형성되어 온 과정을 살펴 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그것의 분석틀(framework)과 방법(method)의 측면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역사 연구의 이론적 자원과 방법들이 어떻게 2010년대 이후의 세계생태 분석의 성숙에 기여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무어가

를 비판해 왔다. 처음에 포스터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였지만, 무어(Moore, 2017)는 결국 그를 논쟁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결국 2018년에 버킷과 함께 포스터는 무어에 대한 비판을 출판하였다(Foster and Burkett, 2018). 이때를 전후하여 생태 맑스주의 진영은 포스터를 지지하는 편과 무어를 지지하는 편으로 나뉘어 열띤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무어를 지지하는 견해로는 Yaşin(2017), Kallis and Swyngedouw(2018)를, 포스터를 지지하는 견해로는 Saito(2017), Parker(2017), Angus(2018)를 볼 것.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 이론에 대한 세계역사적 시각에서의 비판으로 무어에게 영향을 끼친 논문으로는 Schneider and McMichael(2010)과 McMichael(2012)을, 세계체계 시각을 공유하면서도 무어에 대해 비판적인 글로는 Hornborg(2017)와 Malm(2019)을 볼 것. 무어는 2019년 2월 인터뷰에서 포스터뿐만 아니라, 맑스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도 선보인다(Gaffney et al., 2020). 여기에서 그는 자신을 라투르 같은 하이브리디스트로 오해하는 맑스는 라투르도 무어 자신의 라투르 비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자신을 맑스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포스터는 정작 가치관계와 사회적 필요노동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맑스가 분석한 가치는 물질대사 균열에 관한 그의 수많은 작업들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반비판한다.

초기 저작들에서 윌러스틴과 브로델의 통찰에 기대어 장기 16세기의 상품 프런티어 이동을 분석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때에는 주변적 위치에 머물던 세계역사 분석의 이론적·방법론적 자원들이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핵심적인 계기로 그의 분석을 구성하게 된다. 특히, 분석틀과 방법론 두 측면 모두에 아리기, 맥마이클, 토미치 등의 통찰이 녹아들어 가 있는 것이 자주 관찰된다. 이는 무어의 최근 연구가 세계역사적 과정을 관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1. 세계역사적 분석틀: 체계적 축적순환의 재구성

무어(2020: 260-270)는 체계적 축적순환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한다. 아리기(2008[1994]: 370-408)에 따르면, 체계적 축적 순환은 실물적 팽창(M-C-M')과 금융적 팽창(M-M')의 두 국면으로 구성된다. 이 축적 순환은 새로이 부상하는 헤게모니적 중심에서 발생한 일련의 혁신이 실물적 팽창을 선도하면서 개시된다. 실물적 팽창은 특정 조직구조에 기반해서 진행되는데, 팽창이 진행됨에 따라 애초의 조직구조는 팽창을 계속 고무하기보다는 제약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흥 경쟁자들이 부상하여 시장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헤게모니적 조직 복합체들의 독점 이윤은 사라지고, 핵심부 내에서 생산의 회로 안에 투자된 자본의 이윤율은 균등해지며, 새로운 투자처는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한 이윤압박은 결국 실물적 팽창의 개시를 가능하게 하였던 조직구조를 파괴한다. 이 시점에서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이 생산의 회로에서 철수한 자본을 금융 회로로 이동시키면서 실물적 팽창에서 금융적 팽창 국면으로의 이행이 발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조직 혁명”이 진행된다.

무어가 주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금융적 팽창 국면에서 조직혁명뿐만 아니라, “생태혁명(ecological revolution)”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브로델이 말한 “제노바 시대”(1557-1648)는 지중해를 훨씬 넘어 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일대를 상품경제로 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폴란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르며 진행된 세계생태혁명과 연결되었고, 20세기 말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화 또한 남반구의 세계농장화와 산업화 및 환경비용의 급진적

외부화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곧 금융적 팽창국면에서 자본주의적 행위자와 영토주의적 행위자의 거버넌스 양식에서 발생하는 조직혁명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전유 기회를 급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생태잉여를 급증시키는 생태혁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 생태혁명이 성공한다면 그로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계급구조, 기술혁명, 생산력 발전 패턴들을 갖춘 “생태체제(ecological regime)”가 등장하고, 새로운 실물적 팽창이 진행된다. 이 생태체제는 생산의 중심에 저렴한 에너지, 식량, 원료, 노동력의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들은 전유의 프런티어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유의 프런티어는 유한하므로 애초의 생태혁명이 달성했던 수확체증이 체감 국면으로 접어들며 변곡점을 지난다. 아리기(2008: 372)가 축적체제의 위기를 신호적(signal) 위기와 최종적(terminal) 위기로 구분한 것처럼, 무어(2020: 356)도 생태체제의 위기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 생태체제에서의 신호적 위기는 이전에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노동, 식량, 에너지, 원료가 더 이상 저렴하게 공급될 수 없는 상황으로 분간할 수 있다. 그는 현재 생태체제의 신호적 위기가 2003년에 개시되었다고 본다.²⁰ 무어(2020: 208)는 이 위기가 새로운 생태혁명을 통해 저렴한 자연을 전유하기 위한 조건들을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질 발전적(developmental) 위기인지, 아니면 부, 권력, 자연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배치되는 획기적(epochal) 위기인지 묻고 있는데, 후자의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아리가 『장기 20세기』에서 제시한 분석틀은 무어의 최근 작업의 골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어가 아리의 분석틀을 무조건적으로 모방한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바로 무어가 초기부터 한결같이 의지하고 있는 맑스의 가치 이론에 대한 아리의 거부 때문이다. 무어(2020: 198-199)는 아리의 자본주의 모형이 자본/자연의 공동생산적 관계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투입-산출’을 고려한 투자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는 실체론적 견해로서 자본주의 프로젝트를 그 과정(process)과 혼동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간 자연을 실체로 환원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비판에 기반하여 자본주의 세계생태의 역사를

²⁰ 이보다 앞선 글에서 무어(Moore, 2010: 391)는 통상적 해석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를 신호적 위기로 해석한 바 있다.

표 1 세계생태의 역사적 순환과 축적순환

	무어(2015)의 순환	팽창개시-정점-수축종료	아리기(1994)의 축적순환	팽창개시-정점-수축종료
1	게르만-이베리아 순환	1451년~1557년~1648년	제노바 순환	1450년대~1557년~1640년대
2	네덜란드 주도 순환	1560년대~1680년~1740년대	네덜란드 순환	1640년대~1740년대~1780년대
3	영국 주도 순환	1680년대~1873년~1910년대	영국 순환	1780년대~1873년~1910년대
4	미국 주도 순환	1870년대~1971년~1980년대	미국 순환	1910년대~1970년대~?
5	신자유주의(신중상주의) 순환	1970년대~2000년대 초반~?		

다섯 개의 연속적인 순환들로 재구성하였다. 표 1은 아리의 축적순환과 그의 세계생태 순환을 비교한 것이다.

아리의 장기세기는 금융팽창-실물팽창-금융팽창의 세 국면 과정이고, 체계적 축적순환은 이 장기세기 중 뒤의 두 국면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표 1에서 제시된 아리의 축적순환의 기간은 중첩되지 않지만, 장기세기의 기간은 중첩된다. 이에 비하여, 무어의 순환들은 아리의 장기세기처럼 앞선 순환의 쇠퇴와 뒤이은 순환의 개시가 중첩되고 있다. 아리기(2008: 370)의 시기 구분과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순환은 아리의 체계적 축적순환과 일치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순환들은 기간이 중첩되나 일치하지 않고, 아리의 장기 20세기를 둘로 나누어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독립적인 순환들로 상정하고 있다. 무어는 이 시기 구분이 잠정적이며 재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의 여지를 남기면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순환의 교체에 대한 체계적 서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역사적 시기 구분은 세계생태의 역사를 앞으로 구성해 보겠다는 그의 포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전 지구적 가치 관계

무어(Moore, 2011: 125)는 여전히 가치관계를 자본주의 세계생태의 “중력 중심”으로 보는 시각을 견지한다. 여기에서 그는 맑스의 가치관계 분석에 입각하여 세계역사 분석을 수행한 일군의 학자들의 선행 작업에 의지하게 된다(Tomich,

2016[1990]; 1994; 1997; McMichael, 1990; 1999; Araghi, 2003). 이들은 자본의 사회적 관계를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전체로 간주하는데, 세계시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상호규정하면서 이 전체를 관계적으로 형성한다고 본다(Tomich, 2016: 5-6). 19세기에 임금노동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자본-노동관계의 중심적인 조직력으로 등장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자본이 노동을 조직하는 유일한 형태가 아니었다. 이 전지구적 가치관계 혹은 임금노동-자본 관계 안에서 임금노동은 다른 형태의 비임금노동과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McMichael, 1999: 12-13). 전체 자본주의적 가치 관계 안에서 상이한 노동 형태들이 배치되어 연결되는 과정에는 자연적 경제법칙이 아니라 늘 지배집단의 프로젝트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 연결은 정치적이다.

언뜻 보면 이러한 분석들은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에 충실한 것 같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월러스틴의 비판자들이다. 이들은 1970년대 월러스틴-브레너 논쟁이 자본주의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더 진전되지 못한 것은 이들이 세계시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둘 중 하나에 개념적 우위를 부여하고 다른 하나에는 부차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양자 간의 관계와 그 관계가 형성하는 총체적 과정에 대해 제대로 사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Tomich, 1997; McMichael, 1999: 15-17). 월러스틴과 브레너의 이론적 입장은 각자가 취한 개념만이 자본주의 체계를 본질적으로 특징짓는 유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그 체계의 주요 동학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간주된 관계와 과정들은 우연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격하한다. 임금 형태이든 세계시장이든, 각자의 주요 개념만이 자본주의의 실제 역사와 동일시되고, 자본주의의 이론과 역사가 혼동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복잡성은 역사적 체계로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규정하는 단일 차원으로 환원된다.

월러스틴의 분석 속에서 임금노동자, 소상품생산자, 차지농업가, 분업소작농, 노예 등 다양한 계급 관계 형태들은 고유의 특수성을 상실하고, 시장을 위한 생산이라는 공통성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 더 강조된다. 계급이 사회적 생산/재생산 과정 안에서 맺게 되는 관계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생산자와 생산물과의 관계, 곧 사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으로는 상이한 계급 관계들을 구분하는 것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역사적 발전 과정 안에서 이 상

이한 계급 관계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계급관계의 특정 형태와 특수한 지역의 역사는 이론적으로 미리 규정된 전체 내부의 위치 — 핵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 로 환원되기 때문에 시장과 생산의 관계도 역사적이지 않고 기능주의적이다. 토미치(Tomich, 2004: 44)는 월러스틴의 이 분석이 “역사 없는 역사적 체계, 정태적·불변적 분석틀 안에서 연출되는 사건들의 안무(choreography)”로 귀결되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한다.

브레너(Brenner, 1977)에 대해서 토미치(Tomich, 2004: 45)는 여타 정치경제 관계들보다 생산관계에 우위를 부여한 맑스의 일반적인 이론적 주장과 생산의 특수한 경험적·역사적 현실을 혼동한다고 비판한다. 여타 자본주의적 관계들 중에서 오직 사회적 생산관계만이 특정 “사회”의 특징이 될 수 있다거나, 역사적 계급관계 혹은 생산관계를 언제나 시장관계보다 우선적인 보편적 결정요인으로 보는 이 시각의 근원에는 바로 이러한 혼동이 놓여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생산관계의 한 형태는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인 전체로 상정되고, 다른 생산관계 형태와 맺는 관계는 외적 대상과의 관계로 치부된다. 이 시각에서는 일국적 상품 생산이 세계경제의 상품 유통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되므로, 상이한 생산형태 간의 관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 임금노동형태만 진정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사회의 자본주의 여부는 임금노동의 경험적 존재 여부와 배타적으로 동일시된다. 반대로 비임금 노동 형태는 모두 비자본주의적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세계경제 내에서 사회적 노동의 생산과 재생산의 다양한 형태들 간의 상호관계는 분석의 시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세계경제는 그 어떤 체계적 통일성도 존재하지 않는 이질적 파편들의 앙상블로 남고 만다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는 세계적 규모에서의 계급형성 동학은 왜곡되거나 분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월러스틴과 브레너 모두 생산과 교환의 개념을 실제 사회적 과정과 혼동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 발전과 계급 형성 과정의 역사적 복합성을 “세계적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Tomich, 2004: 46; 무어, 2020: 59). 그 추상적 범주들은 분석을 위한 인식의 출발점이지, 결코 분석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토미치는 (브레너와 II절에서 살펴본 버킷 모두를 포함하는) 기존 맑스주의적 이해와는 다른 “생산” 개념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곧 노

동, 도구, 물질 등과 같은 생산요소들의 사회적 조합으로 생산을 이해했던 것과 달리, 생산을 분배, 교환, 소비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생산 개념 안에 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이론화는 맑스가 『정치경제학비판 요강』에서 선보인 생산에 대한 총체적 파악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하나의 총체성의 분절들, 하나의 통일체 내에서의 차이들을 이룬다는 것이다. 생산은 생산의 대립적인 규정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계기들도 총괄한다. ... 일정한 생산이 일정한 소비, 분배, 교환과 이 상이한 계기들 상호간의 일정한 관계들을 규정한다. 물론 생산도 그것의 일방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계기들에 의해 규정된다(맑스, 2000, I: 69-70).

이제 생산, 분배, 교환, 소비 과정들 간의 모든 관계들이 상호관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이론적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통일체 내에서의 차이들”이 비로소 식별 가능해진다. 이처럼 이들의 세계역사 분석은 세계시장이나 일국적 생산관계들 중 어디에 분석의 우선성을 둘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을 허위적 대립으로 기각하고, 생산이 다른 계기들을 결정하면서도 그들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의 계기, 곧 자본주의라는 “수많은 결정과 관계의 풍부한 총체성”을 구성하는 계기로 개념화된다(맑스, 2000, I: 70-71; McMichael, 1990: 391; 1999: 15). 무어(2020: 59, 87)는 이러한 관계적 이론화의 핵심을 취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사회체제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바라본다. 곧 생산, 분배, 교환, 소비뿐만 아니라, 자본, 권력, 자연이 함께 자본주의라는 풍부한 총체성을 구성하며 상호규정·공진화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 또 이 관계적 이론화는 무어가 가치형태를 더 넓은 가치관계를 구성하는 계기로서 파악할 때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체 발전 과정을 그 안에서 행해지는 프로젝트와 대항 프로젝트들 간의 경합을 통해 구성되는 모순적 과정으로 보는 것에도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맥마이클과 토미치의 윌러스틴 비판과 무어의 저술들에는 세계경제를 관계적 과정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홉킨스(1982)의 주장이 자주 인용된다. 자신에 대한 이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윌러스틴이 이에 대한 입장을 글로 남기지 않은 데에는 그가 생전에 가장 의지했던 지적 동료 홉킨스가 이들의 동지적 비

판을 응원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²¹ 이러한 세계역사 연구의 윌러스틴 비판과 무어의 세계생태 분석의 연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윌러스틴이 『근대 세계체계』 제1권의 제2판 서문에 쓴 “무어가 나를 구해 줬다”는 말을 단순히 무어가 윌러스틴의 분석틀 안에서 생태사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수행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초기와 달리, 무어의 최근 작업은 윌러스틴의 지적 자원뿐만 아니라 그의 세계체계 분석을 비판한 동료들의 분석틀과 방법을 자기화하여 변증법적으로 지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방법으로서의 세계생태: 현실추상과 추상의 폭력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틀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세계생태의 방법(method)을 살펴보자. 무어의 최근 작업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연(Nature)/사회(Society) 이원론, 곧 데카르트주의적 이원론 비판이다. 이는 그의 자본주의 세계생태 비판의 테마이면서 동시에 그의 초기 작업에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였던 물질대사 균열 이론과 갈라서는 결정적 계기이기도 하다. 인간 혹은 사회에 외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자연, 곧 자본주의가 동질화하여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고 가격을 매기거나 무상으로 전유하는 자연은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추상의 산물이다.

무어(2020: 92)는 이 추상이 “현실적(real)”이면서 “폭력적(violent)”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그것이 현실적인 이유는 현실적인 위력을 갖는 추상의 존재론적 차원 때문이다. 초기 저작에서 개별적으로 언급되던 사례들이 최근 저작에서는 존레텔(1986[1978])의 “현실추상” 개념을 통해 데카르트주의적 이원론 비판을 구성하는 핵심적 계기로 자리잡게 된다. 초기의 작업에 영향을 끼쳤던 버킷, 카슨, 브레이버만의 저작에서 다뤄졌던 자연과 노동의 추상화는 인간의 사유 과정 속에

²¹ 빙햄턴대학교에 세계역사 과정 연구에 특화된 사회학과 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든 홉킨스는 윌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내부 비판들을 환영했고 실제로 고무하였다고 한다. 윌러스틴을 비판한 토미치(1990)의 책이 출판되었을 때, 홉킨스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비판”이라며 좋아했다는 사실을 토미치는 행복하게 회상한다(Marques and Parron, 2019: 767).

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속-자연(nature-in-human)과 자연-속-인간(human-in-nature)에게 현실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키워지고 제거되면서 종다양성이 위협받는 것처럼, 인간의 다양한 자세들이 노동과정 속에서 “교체가능한 부품”으로 동질화되어 인위적인 연속 동작 속에 배치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 자세들은 그것이 인간의 근육운동에 자연스러운 것일지라도 배제된다.

다른 한편, 이것이 폭력적인 이유는 추상 과정에서 현실적 규정들이 사상되는 추상의 인식론적 차원 때문이다.²² 토미치(Tomich, 2016[1990]: 4-7)와 맥마이클(McMichael, 1990: 391)은 모두 이 개념에 의존하여 자본주의 세계경제 혹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미리 전제된 범주들의 집합으로 상정하면서 현실의 본질적 관계들과 과정을 사상하는 정치경제학 이론들을 비판하였다. 여기에는 신고전파 이론뿐만 아니라 기존의 맑스주의자들의 이론과 월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도 포함된다. 이 추상의 폭력은 상이한 형태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오직 그 관계적 과정 속에서만 그 모습으로 형성되는 형태를 사상한다. 예컨대, 브레너와 월리스틴의 분석은 모두 생산과 시장, 자본주의와 노예제 간의 관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Tomich, 2004: 33).

토미치와 맥마이클이 브레너와 월리스틴을 비판할 때 썼던 이 “추상의 폭력” 개념은 데카르트주의적 자연/사회 이분법 일반, 특수하게는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 이론을 무어(2017: 292-296)가 비판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자주 등장한다. 이 이분법, 혹은 균열을 분리로 이해하는 포스터의 최근 방식은 자연과 사회를 하나의 전체, 곧 사회-속-자연과 자연-속-사회의 이중 내부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인식론적 장벽인 것이다. 무어의 최근 저작까지 포함해서 세계역사 분석은 “구체적 총체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맑스, 2000, I: 72; 코지크, 1984[1963]: 13-56; Tomich, 2016: 33; McMichael, 1990: 391-392; 무어, 2020: 458-459). 이 구체적 총체성은 세계경제 혹은 세계생태를 부분과 전체의 특정한 역사적 통일로서 파악하는 존

²² 이 “추상의 폭력”은 원래 리카도가 그의 다양한 경제적 범주들과 관계들이 가치 이론에 잘 포함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본질적인 연관들을 생략한 채 본인의 경제적 범주들이 서로 딱 들어맞음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 맑스가 『잉여가치학설사』 10장에서 가한 비판을 세이어(Sayer, 1978: 121; 1987)가 개념화한 것이다.

재론적 입장이면서 동시에, 미리 주어진 범주들의 불변적 집합이 아니라 연구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 인식론적 과제이기도 하다. 직관이 감지하는 사회적 현실의 구체성이 무규정적인 사이비 구체성이라면, 한 역사적 이론에 의해 매개되어 구축된 전체 현실의 구체성에는 추상 과정에서 특권화된 관계들의 결정이 개입한다. 곧 사유의 도착점으로서의 구체성은 “수많은 규정과 관계의 풍부한 총체성”을 담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어가 제시하려고 하는 구체적 총체성이 바로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인 것이다.

구체적 총체성은 토양 악화, 삼림 벌채, 자원 고갈, 실업, 금융위기와 같은 사례들(cases)을 더 큰 전체를 구성하는 과정의 계기들(moments)로 통합시킴으로써 스스로를 형성한다. 이 구성되는 전체가 무어(2020: 458)가 홉킨스(1982)를 인용하며 “부분-전체 접근”이라 명명한 자신의 접근 방법의 결과물인 것이다. 여기에서 부분과 전체는 그 자체로서 이론적 선차성을 부여받지 않고, 상대방을 전제함으로써만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 자연과 역사적 자본주의를 변증법적 통일 관계로 파악하는 표현인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는 데카르트주의적 이분법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응축되어 있는 표현이다. 이는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내부의 위기이고 생태위기는 자본주의 외부에 위치한 자연의 위기로 파악하는 이분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V. 맺으며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생태 분석의 형성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무어는 한편으로 생태 맑스주의적 전통의 물질대사 균열 이론과 가치형태 분석을 세계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윌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을 생태 맑스주의적으로 독해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자의 종합을 시도하면서 세계생태 분석을 세상에 선보였다. 둘째,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 무어는 세계생태 분석을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라는 구체적 총체성의 분석적 재현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독특한 시각, 분석틀, 방법으로서 발전시켜 왔다. 셋째, 이론적 성숙 과정에서 초기의 이론적 자원 중 포스터의 물질대사 균열

이론을 데카르트주의적 이원론으로 비판하면서 이들과 논쟁적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넷째,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에 기여한 것으로서 월러스틴에 비판적이었던 세계역사 연구의 이론적 자원들을 들 수 있는데, 최근의 무어는 단순히 월러스틴의 분석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던 초기의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최근에 형성된 포스터와의 논쟁 구도에서도 자본주의 세계경제/세계생태가 장기16세기에 등장하였다고 본 무어의 초기 입장은 견지된다. 그러나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에서는 저발전되었던 이론적 계기들이 더욱 세련되면서도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월러스틴의 19세기 사회과학 비판은 장기 16세기에 등장한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비판으로 그 주요 비판 대상의 시간성이 과거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그의 인간중심주의 비판은 월러스틴의 유럽중심주의 비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월러스틴이 분석대상에 비백인, 비남성, 비시민 인간들을 제외하는 것을 비판했던 것처럼, 무어는 자연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회중심론이나 자연을 오직 인간사회의 외부적 대상인 환경으로만 다루는 이원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무어는 가치관계 분석을 통해 착취와 전유를 개념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맑스의 가치 이론을 재해석하는 데 현재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그것의 이론적 기여에 대한 평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잉여, 잉여가치, 잉여노동, 잉여생산물 등의 범주를 호환가능한 것으로 사용하던 월러스틴의 입장에 비하면 한결 명쾌해져 있음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은 그것의 전제로서 외부의 전유 영역이 존재해야만 함을 역설하는 그의 입장은 그 동안 서로 반목과 갈등을 빚어왔던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간의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을 새로 열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목적으로 설정했던 세계체계 분석과의 연관 속에서 세계생태 분석을 평가해 보자. 무어를 월러스틴의 후계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회의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공존할 것이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 대답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2010년대 중반 이후 전통적인 세계체계 분석의 전반적 퇴조 경향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페르낭 브로델 센터가 1976년부터 간행하였던 저널 *Review*는

2016년을 끝으로 폐간되었고, 센터 역시 2021년 폐관 예정이라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세계생태 분석의 주요 이론적 자원이었던 세계역사 연구의 제도적 기반이 없어지는 것이다. 제1세대 세계체계 분석가들이 세상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동지적 비판을 가하였던 동료와 제자들도 이미 학계에서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역사 분석은 학문적 재생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무어가 세계생태 분석을 하나의 대화로 상징하며 확대재생산을 도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세계생태 분석 이외의 다양한 세계역사 분석이 새로 등장하지 않을 경우, 곧 한 뿌리에서 나와 다르지만 교차성장할 수 있는 자매 학과 또는 새로이 전유할 역사적-이론적 분석의 프린티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 분석이 독창적 시각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도 가능하다. 오늘날 윌러스틴의 지적 유산을 계승한 학자들 중에서는 어쨌든 무어의 연구가 가장 돋보인다는 사실이나, 그가 세계생태 분석을 집합적 연구네트워크로 성장시켰다는 점, 또 세계역사 분석의 대표적 연구들의 성과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 기존의 생태 맑스주의 논의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던 이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하면서 자본세 논의를 이끌고 있다는 점 등을 그 대답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방금 말한 것들은 다 좋은 이유들이지만, 긍정적인 대답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안 좋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경제 혹은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의 생태적 지속불가능성의 심화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무어의 세계생태 분석이 정조준하고 있는 비판대상이다. 어떠한 전공 학문이든 이 생태위기를 다루지 않고는 이제 학문으로서 그 존립의 근거가 의심될 정도로 오늘날의 생태환경 악화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는 상당한 합의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위기상황은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생태환경담론의 전반적 부상을 갖고 왔으며, 이 추세가 당분간 역전될 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생태주의 논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세계생태 분석의 앞날은 상당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윌러스틴이 그러했듯, 세계생태 분석도 자본주의의 등장부터 그 미래까지를 분석의 시간적 지평에 포함하고 있다. 거대서사에 대한 회의와 역사의 망각이 횡행하는 오늘날 이 분석은 분명 현재에 대한 하

나의 반시류임이 분명하다. 세계생태 분석은 현재 우리가 접근해 가고 있는 위기가 자본주의의 위기와 생태환경의 위기라는 분리된 두 위기가 아니라 양자가 함께 얽혀 있는 하나의 위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세계생태 대화의 장에서 오가는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투고일: 2020년 10월 15일 | 심사일: 2020년 11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3일

참고문헌

- 고르, 앙드레 저. 임희근·정혜용 역. 2008. 『에콜로지카: 정치적 생태주의, 붕괴 직전에 이른 자본주의의 출구를 찾아서』, 생각의 나무.
- 고정갑희. 2013. “가부장체제의 생산-노동 비판: 가부장체제론과 자본주의적 생산-노동 다시 보기.” 『마르크스주의 연구』 10권 1호, 49-78.
- 김원태. 2013. “가사노동(논쟁) 비판.” 『진보평론』 55호, 226-281.
- 김철규. 2016.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론: 자본주의의 모순과 인식론적 혁명.” 김문조 외. 『오늘의 사회이론가들』, 79-110. 한울.
- 존-레텔, A. 저. 황태연·윤길순 역. 1986.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철학적 인식론 비판』, 학민사.
- 마르크스(맑스), K. 저. 김수행 역. 1990. 『자본론』 III. 비봉출판사.
- _____. 김수행 역. 1991. 『자본론』 I. 비봉출판사.
- _____. 김호균 역. 2000.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I-III. 백의.
- 무어, 제이슨 W. 저. 김효진 역. 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자본의 축적과 세계생태론』, 갈무리.
- 미즈, 마리아 저. 최재인 역. 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 백승욱. 2006. 『자본주의 역사강의』, 그린비.
- 브레이버맨, 해리 저. 이한주·강남훈 역. 1987. 『노동과 독점자본: 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제2판). 까치.
- 아리기, 조반니 저. 백승욱 역. 2008.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원』, 그린비.

- 엥겔스, 프리드리히 저. 윤형식·한승완·이재영. 역. 1989. 『자연변증법』. 중원문화.
- 월러스틴, 이매뉴얼 저. 성백용 역. 1994.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19세기 페러다임의 한계』. 창작과비평사.
- _____. 유재진·서영건·현재열 역. 1999. 『근대세계체제 II: 중상주의와 유럽 세계경제의 공고화, 1600-1750년』. 까치.
- _____. 이광근 역. 2005. 『월러스틴의 세계체제 분석』. 당대.
- _____. 나종일·박상익·김명환·김대륜 역. 2013. 『근대세계체제 I: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제2판). 까치.
- 이광근. 2020. “세계체제 분석의 형성과 발전: 월러스틴의 지적 여정과 비판에 대한 고찰.” 『현상과 인식』 44권 1호, 181-228.
- 정성진. 2013. “가사노동 논쟁의 재발견: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페미니즘의 결합 발전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10권 1호, 12-48.
- 코지크, 카렐 저. 박정호 역. 1984. 『구체성의 변증법』. 거름.
- 클라인, 나오미 저. 이순희 역. 201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자본주의 대 기후』. 열린책들.
- 파텔, 라즈·제이슨 무어 저. 백우진·이경숙 역. 2020.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자본주의에 숨겨진 위험한 역사 자본세 600년』. 북돋움.
- 포스티, 존 벨라미 저. 김민정·황정규 역. 2016. 『마르크스의 생태학: 유물론과 자연』. 인간사랑.
- 하비, 데이비드 저. 최병두 역. 1995[1982]. 『자본의 한계: 공간의 정치경제학』. 한울.
- _____. 2005. 『신계국주의』. 한울.
- Angus, Ian. 2018. “Illusions of World-Ecology.” *International Socialism* 157. <http://isj.org.uk/illusions-of-world-ecology> (검색일: 2020. 10. 30).
- Araghi, Farshad. 2003. “Food Regimes and the Production of Valu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0(2), 41-70.
- Arrighi, Giovanni. 1998. “Capitalism and the Modern World-System: Rethinking the Non-Debates of the 1970s.” *Review* 21(1), 113-129.
- Benton, Ted, ed. 1996. *The Greening of Marxism*. New York, Guilford Press.
- Braudel, Fernand. 1973.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in the Age of Philip II*. New York: Harper Torch Books.
- Brenner, Robert. 1977. “The Origins of Capitalist Development: A Critique of Neo-Smithian Marxism.” *New Left Review* 1(104), 25-92.

- Burkett, Paul. 1999. *Marx and Nature: A Red and Green Perspective*. New York: St. Martin's Press.
- Carson, Rachel. 1962. *Silent Spring*. Boston: Houghton Mifflin.
- Coquery-Vidrovitch, Catherine. 1975. "Research on an African Mode of Production." *Critique of Anthropology* 2(4-5), 38-71.
- Fogel, Joshua A. 1988. "The Debates over the Asiatic Mode of Production in Soviet Russia, China and Jap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3(1), 56-79.
- Foster, John Bellamy. 1999. "Marx's Theory of Metabolic Rift: Classical Foundations for Environmental Soci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2), September, 366-405.
- _____. 2000. *Marx's Ecology: Materialism and Natur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Foster, John Bellamy and Paul Burkett. 2016. *Marx and the Earth: An Anti-Critique*. Leiden: Brill.
- _____. 2018. "Value Isn't Everything." *Monthly Review* 70(6): 1-17.
- Fraser, Nancy and Rahel Jaeggi. 2018. *Capitalism: A Conversation in Critical Theory*. London: Polity.
- Freund, Bill. 1985. "The Modes of Production Debate in African Studies." *Canadian Journal of African Studies* 19(1), 23-29.
- Gaffney, Michael, Claire Ravenscroft, and Casey Williams. 2020. "Capitalism and Planetary Justice in the 'Web of Life': An Interview with Jason W. Moore." *Polygraph* 28, 161-182.
- Haraway, Donna J. 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niv. Press.
- Hayward, Tim. 1994. *Ecological Thought: An Introduction*. London: Polity.
- Hopkins, Terence K. 1982[1978]. "World-System Analysis: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In Te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eds., *World-Systems Analysis: Theory and Methodology*, 145-158. Beverly Hills: Sage.
- Hopkins, Terence K., and Immanuel Wallerstein. 1986. "Commodity Chains in the World-Economy Prior to 1800." *Review* 10(2), 157-170.
- Hornborg, Alf. 2017. "Dithering While the Planet Burns: Anthropologists'

- Approaches to the Anthropocene.” *Reviews in Anthropology* 46(2-3), July, 61-77.
- Kallis, Giorgos and Erik Swyngedouw. 2018. “Do Bees Produce Value?: A Conversation Between an Ecological Economist and a Marxist Geographer.” *Capitalism Nature Socialism* 29(3), 36-50.
- Laclau, Ernesto. 1971. “Feudalism and capitalism in Latin America.” *New Left Review* 1(67), 19-38.
- Malm, Andreas. 2019. “Against Hybridism: Why We Need to Distinguish between Nature and Society, Now More than Ever.” *Historical Materialism* 27(2), 156-187.
- _____. 2020. *Corona, Climate, Chronic Emergency: War Commu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Verso.
- Marques, Leonardo and Tâmis Parron. 2019. “Relational History: An Interview with Dale Tomich.” *Tempo* 25(3), September/December, 764-773.
- Mészáros, Istvan. 1995. *Beyond Capital: Towards a Theory of Transition*.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McMichael, Philip. 1990. “Incorporating Comparison within A World-Historical Perspective: An Alternativ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June, 385-397.
- _____. 1999. “The Global Crisis of Wage-Labour.”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58, 11-40.
- _____. 2012. “In the Short Run Are We All Dead?: A Political Ecology of the Development Climate.” In Richard E. Lee, ed. *The Longue Durée and World-Systems Analysis*. Albany: SUNY Press.
- Moore, Jason W. 2000a. “Environmental Crises and the Metabolic Rift in World-Historical Perspective.”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13(2), June, 123-157.
- _____. 2000b. “Sugar and the Expansion of the Early Modern World-Economy: Commodity Frontiers, Ecological Transformation, and Industrialization.” *Review* 23(3), 409-433.
- _____. 2001. “(Re)Discovering Marx’s Materialism.”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14(2), June, 240-245.

- _____. 2003a. "Nature and the Transition from Feudalism to Capitalism." *Review* 26(2), 409-433.
- _____. 2003b. "The Modern World-System as Environmental History?: Ecology and the Rise of Capitalism." *Theory and Society* 32(3), June, 307-377.
- _____. 2003c. "Capitalism as World-Ecology: Braudel and Marx on Environmental History."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16(4), December, 431-458.
- _____. 2010. "The End of the Road?: Agricultural Revolutions in the Capitalist World-Ecology, 1450-2010." *Journal of Agrarian Change* 10(3), July, 389-413.
- _____. 2014. "The Value of Everything?: Work, Capital, and Historical Nature in the Capitalist World-Ecology." *Review* 37(3-4), 245-292.
- _____. 2015. *Capitalism in the Web of Life: Ecology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ondon: Verso.
- _____. 2017. "Metabolic Rift or Metabolic Shift?: Dialectics, Nature, and the World-Historical Method." *Theory and Society* 46(4), September, 285-318.
- _____. ed. 2016. *Anthropocene or Capitalocene?: Nature, History,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Oakland: PM Press.
- Parker, Jean. 2017. "Ecology and Value Theory." *International Socialism* 153. <http://isj.org.uk/ecology-and-value-theory> (검색일: 2020. 10. 30).
- Saito, Kohei. 2017. "Marx in the Anthropocene: Value, Metabolic Rift, and the Non-Cartesian Dualism." *Zeitschrift für kritische Sozialtheorie und Philosophie* 4(1-2), 276-295.
- Sayer, Derek. 1978. *Marx's Method: Ideology, Science and Critique in 'Capital'*. Brighton: Harvester Press.
- _____. 1987. *The Violence of Abstraction: The Analytic Foundations of Historical Materialism*. Oxford: Basil Blackwell.
- Schneider, Mindi, and Philip McMichael. 2010. "Deepening, and Repairing, the Metabolic Rift." *Journal of Peasant Studies* 37(3), July, 461-484.
- Tomich, Dale W. 1994. "Small Islands and Huge Comparisons: Caribbean Plantations, Historical Unevenness, and Capitalist Modernity." *Social Science History* 18(3), 339-358.
- _____. 1997. "World of Capital, Worlds of Labor: Reworking Class in Global Perspective." In John R. Hall and Patrick Joyce, eds. *Reworking Class:*

- Cultures and Institutions of Economic Stratification and Agency*, 287-311.
Ithaca: Cornell Univ. Press.
- _____. 2004. *Through the Prism of Slavery: Labor, Capital, and World Economy*.
Lanham, Rowman & Littlefield.
- _____. 2016[1990]. *Slavery in the Circuit of Sugar: Martinique and the World-Economy, 1830-1848* (2nd ed.). Albany: SUNY Press.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System, Vol. 1: Capitalism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y Press.
- Yaşın, Zehra Taşdemir. 2017. "The Adventure of Capital with Nature: From the Metabolic Rift to the Value Theory of Nature." *Journal of Peasant Studies* 44(2), 377-401.

Abstract

World-Ecology and the Concrete Totality of Historical Capitalism: Evolution of the World-Systems Analysis

Kwangkun Lee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critically reconstitutes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world-ecology analysis of Jason W. Moore in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of the early 2000s, the world-ecology analysis was born by an intellectual interaction between ecological Marxist theories and the world-systems analysis. In the second phase since the mid-2010s, the analysis has grown up as a distinct perspective, frame, method, and conversation. Reflexively criticizing the earlier theoretical resources through the second phase, *Capitalism in the Web of Life* has attracted wide attention, and subsequently involved in a series of controversies. It is not yet clear how this perspective further evolves. However, it seems certain that it is possible to construct a broader table for a meaningful conversation not only for a radical critique of the current ecological crisis of capitalism but also for delineating a possible future of capitalism in the web of life on a planetary scale.

Keywords | world-ecology, world-system, metabolic rift, web of life, concrete totality

